

6  
2020

VOL. 288

#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Z Flip

# Sophisticated look, magnificent experiences.

Impressive Camera Experience | Modish Design | Stunning Display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 온 가족의 청정 라이프 웅진코웨이로 시작하세요

## OMBAK CHP-7310R

냉온 RO 정수기  
월 Rp. 500,000 / 36개월

### 제품 · 서비스 · 가격 문의

- ☎ (021) 5086 0419
- ☎ 0812 8825 6357
- ✉ cowayid@coway.id
- 📷 coway\_id



## STORM AP-1516D

15 평형 공기청정기  
월 Rp. 270,000 / 36개월

대한민국 NO.1 브랜드<sup>1)</sup>  
코웨이를 인도네시아<sup>2)</sup>에서도  
만나보세요.

###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1위

- ✓ 정수기 부문 21년 연속 1위
- ✓ 공기청정기 부문 17년 연속 1위



36개월<sup>3)</sup> 동안  
한 잔의 물, 한 숨의 공기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 ✓ 2개월 1회 방문 서비스
- ✓ 제품 설치 · 위생 관리 서비스
- ✓ 필터 교체 · AS 서비스

heart  
service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코웨이 헬스플래너,  
한국인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 헬스플래너 지원 문의

- ✓ cowayid@coway.id
- ✓ (021) 5086 0419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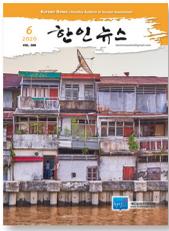
##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sup>th</sup>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지난해 6.28. 깔리만판 폰티아낙 출장(어업계 고등학교 대상 EPS설명회)중 잠시 시간이 남아 방문했던 Sungai Landuk입니다.

유람선 타고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갔다 오는 코스인데, 길지않은 여행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삶이야 마냥 쉽지는 않겠지만, 옹기종기 서로에게 기댄 채 오랜 시간을 견뎌온 모습이 정겨워 보여 해질녘의 석양빛과 함께 밝은 톤으로 사진에 담았습니다.

(소니 알파 M3, 70-200mm, F5.6, 1/125, ISO400) 사진: 최정윤(인도네시아EPS 센터장)

# contents

2020. 06. 통권 2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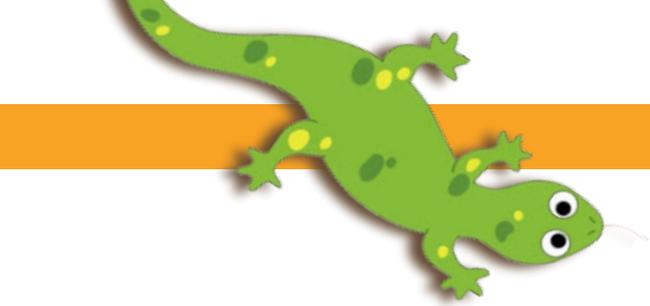
- 07 인도네시아 라이프 No.6 - 애완용 도마뱀 키우기 <황유경>
- 08 논설위원칼럼 - 중국에서 온 의사들 <김문환>
- 10 신성철칼럼 - 살아있는 역사책 인도네시아 한인들
- 13 인도네시아 한인회, 고려대안산병원과 코로나 19 상담 네트워크 가동
- 14 아사위기 한센인 마을 살리다
- 16 네 지붕 네 가족 이야기 <편집국>
- 20 이코노미 인사이드 - 호환, 마마 그리고 코로나 <황준규>
- 22 이웃과 함께 COVID 19 극복을 위한 나눔 이야기
- 24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30 - 반란의 시대
- 28 뉴스브리핑 <자타르타 경제신문>
- 32 꽃청춘 프로젝트 6탄 <김승욱>
- 34 두 개의 시선 - 네 문장으로 말해요 <헬렌>
- 36 자카르타 맛집탐방 - KACAMATA <주윤지>
- 38 나 바 수 <민선희>
- 42 Menara Syahbandar 전망대 <조은아>
- 46 가르침과 배움의 어제와 오늘 <김도현>
- 50 행복에세이 - 나눔의 행복 <이태복>
- 53 A STAR IS BORN <편집국>
- 54 JKS 소식
- 56 슬기로운 학교생활 <김다현>
- 57 코린도그룹, 방호복 파푸아에 지원
- 58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286) <이승민>
- 60 하늘을 나는 꿈을 지녔던 토목장인 <설윤>
- 63 Pancoran 사람들 No.17 <편집국>
- 66 생활정보

## 월간 한인뉴스 6 2020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최정윤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꼬리가 꿈틀! 매리ქ도 꿈틀!



정식으로 우리 집 식구가 된 애완용 도마뱀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보통 애완동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장아장 걸음마 시절부터 유독 파충류를 좋아하는 둘째 딸의 끈질긴 요청으로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한 레오파드 게코. 순쉬운 사육 방식과 순한 성격으로 지금은 5마리까지 키우게 된 매력적인 도마뱀입니다. 사실 처음 딸아이가 도마뱀을 입양 의지를 내비쳤을 때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집 안팎에 널린 도마뱀을 왜 굳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교감할 나눌 수 있을까 의심도 되었고. 하지만 막상 키워보니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순딩이 도마뱀 게~~코

레오파드 게코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순한 개체입니다. 다소 징그러운 외모와 달리 성격이 포악하지 않아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육 난이도가 낮아 애완동물 사육에 첫걸음을 떼시는 분이나 어린 학생들도 키우기 쉬운 종입니다.

### 꼬리건강이 몸건강!

건강한 레오파드 게코의 말뚱말뚱한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 내가 애완동물 농사는 정말 잘 지었구나! 세상 감탄하게 됩니다. 파충류들은 대부분 아플 때 눈을 질근 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과 참 비슷하죠? 또한 레오파드 게코는 꼬리에 영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꼬리 부분이 마르지 않았는지, 통통하고 탄력이 넘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살아있는 귀뚜라미는 최고의 영양식!

레오파드 게코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나 밀웜 (Meal Worm)을 먹습니다. 조류와 식습관이 비슷하기에 애완조류 용품점에서 레오파드 게코의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유지비로 애완용 도마뱀 사육이 가능하다는 말씀! 며칠 집을 비울 때 먹이를 먹이통에 넣어주고 가면 되니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위탁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파충류 알 전용 부화 트레이에 보관되어 있는 도마뱀 알. 긴 배양기간을 거쳐 앞에서 깨어나고 있는 새끼도마뱀 알에도 숨구멍이 있어 산란 후 바로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 파브르 곤충기가 내집안에!

도마뱀을 키우며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했지만, 알을 낳고 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순간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레오파드 게코는 한 번의 교배로 5차에서 10차까지 산란하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녀석입니다. 부화 기간은 30일에서 70일 사이. 온도와 습도만 잘 맞춰 준다면 별 무리 없이 부화가 가능합니다. 수의사가 꿈인 우리 집 둘째가 눈에 담은 것은 도마뱀의 성장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만의 우주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글귀가 생각나는 유월입니다.





수카르노 대통령과 모택동 주석의 만찬

## 중국에서 온 의사들



김 문 환/논설위원

일본의 패망 직후 미국이 제안하고 소련의 동의 하에 38선이 그어지자 남북간에는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접경지역에는 크고 작은 국지전이 빈발하고 있었다. 38이북의 지도자는 1950년 4월 하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을 만났고, 5월 13일엔 베이징에 들어가 모택동을 극비리에 면담하여 남침계획을 제안한다. 2개월이면 남한을 평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6월에 군사행동이 시작되어 동전상잔의 비극은 시작된다.

이로부터 37년이 흐른 6월은 ‘민주 항쟁의 달’ 로 역사를 수놓는다. 1987년 6월10일부터 6월29일까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기치를 내 건 ‘6월 항쟁’ 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시민운동이 괄목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6월’ 은 한국 현대사에서 두 갈래의 큰 변곡점을 새겨 놓았다.

1965년 오늘, 6월 19일! 알제리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였다. 쿠데타 주모자인 국방장관 후아리 부메디엔(Houari Boumedienne) 대령은 아흐맛 벤 벨라(Achmad Ben Bella) 대통령을 축출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알제리에서 열리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이용하여 적대 중인 말레이시아와 소련을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해 사전에 중국과 협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의외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쿠데타 발발 후 일주일이 지난 6월 26일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공산당(PKI) 당수인 아이딧(Aidit)을 포함하여 8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전용기편으로 일단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카이로에 도착하여 중국과 연합하여 로비를 하고 있었다. 알제리에서 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 실무 작업은 대부분 이곳에서 윤곽이 잡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정상회의는 11월 5일로 연기되었고 마침 수카르노는 지병인 신장병이 재발되어 황급히 귀국하였으나 7월 말에 들어 증세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수카르노가 모스크바와 동구권 국가들을 순방하고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아이딧의 귀국을 재촉하자 아이딧은 8월 6일 귀국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8월 4일 수카르노는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하루 동안 네 차례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들었다. 주치의인 UI대학의 마하르 마르조노 박사(Dr.Mahar Mardjono)가 침실에 들었을 때, 이미 방안에는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여덟 명의 의료진이 진료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7월 22일부터 대통령의 걸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의식불명의 긴급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아이디트가 귀국을 미루는 이유는 모택동과의 중요한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8월 5일 모택동은 자금성(紫禁城) 부근 중국공산당 본부가 위치한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아이디트를 맞았다. 이 자리에서 아이디트는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의 현황을 설명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아 ‘제5군(기존 육, 해, 공, 경찰군 외에 농민, 노동자로 구성될 민병대)’ 설립에 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육군이 제5군 창설에 극력 반대할 뿐만 아니라 수카르노 정부의 ‘대 말레이시아 대결정책’, 중국과의 ‘밀착 외교’ 등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혁명과업 완수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고충을 털어 놓았다. 특히 수카르노의 심각한 건강상태를 빌미로 육군이 공산당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까지 털어 놓았다. 이를 경청하던 모택동은 아이디트에게 “반대와 장성들과 장교들을 일격에 제거할 것과, 수카르노 대통령의 은퇴를 유도할 것”을 교시하였다. 수카르노의 은퇴에 대비하여, 중국 영토 내에 있는 휴양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된다. 아이디트 당수 체제하의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1965년도에 이르러 3백만 명이라는 당원을 확보하며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으로 올라섰으며 소련, 중국에 이은,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의 공산당으로 성장하여 수카르노 정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터였다. 수카르노 정부를 떠받쳐오던 군부, 민족주의 진영, 이슬람 종교계, 공산당간의 사각 균형이 깨지며 공산당 우위로 변모되자 수카르노는 1964년에 이르러 전통적인 친소정책에서 친중정책으로 급선회하여 ‘자카르타-프놈펜-베이징-평양’이라는 새로운 동맹축을 구축하게 된다. 이 동맹관계를 다지기 위해 수카르노 대통령과 수반드리오(Subandrio) 외무장관은 1965년 3월 2일 극비리에 프놈펜을 방문하게 되며, 이보다 앞선 1964년 11월, 12월 첸의(陳毅) 중국 외무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자카르타를 드나든다. 두 번째 방문 시점인 12월 3일엔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상호협력 의정서’가 교환되었다. 이때 수카르노 대통령은 첸의 장관에게 ‘중국이 핵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할 것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핵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한 중국 대표단에게 책상을 치며 흥분하는 돌발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수카르노의 ‘외교 결례’를 보고받은 모택동과 주은래는 천방지축의 수카르노가 중국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였으며, 돌출적인 성격의 수카르노의 역할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혁명 과업’은 수카르노를 배제하고 아이디트 당수의 주도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모택동 주석의 교시를 받고 8월 7일 귀국한 아이디트는 중국에서부터 추가로 대동한 두 명의 중국인 의사와 함께 곧장 대통령궁으로 들어가 귀국보고를 올렸다. 실제로 이 중국인들은 의사로 가장한 중국정부의 밀사였으며, 수카르노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아이디트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음날 재차 보고르 대통령궁을 방문하여 수카르노와 독대하며 모택동 주석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아이디트가 독대를 마치고 나간 직후, 수카르노는 대통령 경호실 제1차장인 운똥(Untung) 중령과 경호실장인 사부르(Sabur) 준장을 각각 침실로 불렀다. “운똥, 자네는 지금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육군장성들을 체포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묻자, 서슴지 않고 하복하였다. “예, 명령만 내려 주신다면 즉각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아이디트가 중난하이에서 모 주석과 밀담을 나눈 지 열흘이 지난 1965년 8월 15일, 첸의 중국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수반드리오 외무장관과 아이디트 당수를 차례로 만나, 중국은 수카르노가 은퇴한 후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휴양지로 ‘백조호(白鳥湖)’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을 은밀하게 흘리게 된다.

# “살아있는 역사책 인도네시아 한인들”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한인사 편찬위원



**[장면1]** 오는 9월 20일 출간을 목표로 한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집필을 위한 취재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던 지난 4월 10일, 자카르타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준봉쇄 조치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이 시작됐다. 모든 건물에 출입할 때 마스크 착용은 물론 체온을 측정하기 때문에 준비하게 대면 인터뷰 계획을 세운 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물론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체온을 측정하고 목아픔 증상이 있는지 자가진단을 한 후, 진하게 인삼차를 마시고 동네 주변 8km 정도를 걸었다. 잠 잘 때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조금 두터운 옷을 입었다.

**[장면2]** 마스크 쓰는 게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워진 PSBB 기간 중 필자가 맡은 한인기업 역사를 취재하기 위해 자카르타 외곽에 있는 모 한인 기업을 방문했다. 수출 오더(주문)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공장 가동은 멈췄고, 사무실에는 4~5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섭씨 30도로 덥고 맑은 날씨였지만 회사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다. 위중한 상황임에도 이 회사 사장님은 필자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업계의 역사를 친절하고 소상하게 설명해주었다.

**[장면3]** PSBB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절대선·절대악은 없다” 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자카르타의 맑은 공기와 뺨 뚫린 교통상황은 하루 동안 한인기업 4곳을 방문해 인터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자카르타 시내 오피스빌딩 대부분은 에어컨을 끄거나 약하게 가동했다. 필자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모 회사 사무실은 창문이 없어서 여러 대의 선풍기를 돌리며 더위를 식혀야 했다. 연신 흐르는 땀을 닦으며 인터뷰를 이어갔다. 점심식사는 한식집에서 배달된 도시락을 먹으며 잊혀지거나 사라질 뻔한 한인들의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기록했다.

세 장면은 PSBB 기간 중 필자가 취재한 환경과 과정을 묘사한 것이지만 다른 집필진들도 비슷한 처지에서 한인사 관련 취재를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7월 26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편찬위원들은 인도네시아 한인 1호 장운원 선생이 자카르타(당시 바타비아)에 도착한 시점인 1920년 9월 20일로부터 만 100년이 되는 2020년 9월 20일에 한인사 출간을 목표로 함께 달려왔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 ‘최초’, ‘1호’ 수식어가 붙은 역사가 많다. 무엇보다 1호가 많다. 1968년 ‘한국 해외 투자 1호’ 한국남방개발(KODECO)의 원목 사업, 1973년 ‘한국 해외 생산 플랜트 수출 1호’인 대상기업(당시 미원)의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건설, 1981년 ‘한국 최초 해외 유전 개발 사업’ 서마두라 유전 공동 개발, 1992년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기관인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1호 설치 국가. 우리가 만든 고등 훈련기 T-50과 잠수함을 가장 먼저 사준 국가인 인도네시아.

반세기 동안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성장, 안정적인 정착은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가진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통해서 일구어 낸 값진 결실이다. 이제 한인기업은 당당히 인도네시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기업의 50년간 시기와 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각각의 경제개발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디딘 후 2020년 현재까지 한인기업 진출 역사를 크게 나눈다면 3단계로 볼 수 있다. 즉, 각각의 출발점이 1968년, 1988년과 1998년이다. 그리고 먼 훗날 지금을 되돌아본다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이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진출의 네번째 출발점이 될 것이다.

30여년 전 필자가 근무했던 공장을 방문했을 때, 변함 없이 우뚝 서있는 보리수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이 든든했다. 과거 필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현지인 청년은 어느덧 머리가 희끗하게 쉰 중견 직원이 되어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랜 기간 한 자리를 지킨 나무와 사람들이 한인기업의 역사를 확인시켰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했고, 이들 투자기업에서 가지가 뻗어나와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한인기업들이 생겨나 이제는 2천여개의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1세들의 자녀들도 성장해서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기 시작했다. 3세가 청년이 돼 4세를 낳았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과 현지에 산 적이 있는 모든 한인들이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의 주인공이다. 잊혀질 뻔했던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흔적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기에는 제한된 시간과 노력이 아쉽고, 꼭 말씀을 들었어야 할 분들을 만나 뵈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한 세기 동안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고통과 땀 그리고 결실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가 앞으로 나올 ‘120년사’ ‘150년사’ ‘200년사’에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협력 상담 이용 안내

-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대사관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시 편리한 의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월 5일)

### COVID-19 의심증상 악화 또는 확진시 상담을 희망하는 동포 한인회로 연락

- ☐ (연락처) 평일주간 09:00~17:00 021-521-2515 / 비상시 0812-1960-308,  
카카오톡 ID : Korasos / 이메일 주소 : innehaninhoe@gmail.com

### 한인회는 증상을 판단하여 필요시 대사관에 협력 상담 단톡방 구성 요청

- ☐ 환자증상, 질문내용 등 : 대사관, 고대 안산병원과 공유

### 대사관 & 고대 안산병원 단톡방 개설, 그룹톡을 통한 자문 진행

(고려대학교 : 관련 전문의 / 자카르타 : 한인 의사, 환자, 영사 등)

- ※ 화상회의는 Google Meet 앱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금주 테스트를 거쳐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

#### ☐ 상담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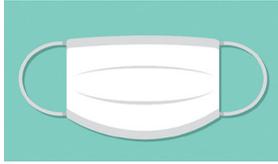
##### ☞ 단톡방 개설 시기

- 확진시
- 증상이 확실하여 원격 상담 희망시

##### ☞ 기타 협력 내용

- 협력 상담은 고대 안산병원과 자카르타 한인병원의 의료봉사로 진행하여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담 신청 요망





## 인도네시아한인회, 고려대 안산병원과 코로나 19 상담 네트워크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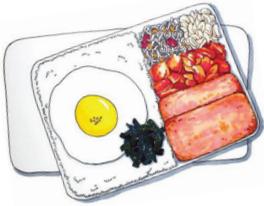
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4월 8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메디스트라 병원과 협약을 맺어 ‘한인전담 COVID19 진료’를 실시했다. 의료 환경이 취약한 인도네시아에서의 한인동포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한인회에서 구입한 한국산 신속진단키트로 검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어 5월 5일, 대사관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시 편리한 의료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그룹톡이나 화상을 활용한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한인들을 위해 코로나 19 상담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김창범대사 송별오찬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20년 5월 4일, 대사관 영사동의 구내 식당에서 김창범대사 송별 오찬을 열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인 것을 감안하여 다수의 한인들이 모이지 않았으나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김창범대사와 석별의 정을 나눴다. 김대사 특유의 따뜻한 매너와 열정으로 한인동포와 함께 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한인회가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사진 좌로부터 김종민 총영사, 김주철 고문, 구종율 자문위원장, 이호덕 고문, 김창범 대사, 박재한 한인회장, 양영연 명예고문, 신기엽 명예고문, 손한평 수석부회장, 최인실 사무국장)



## 쌀 · 라면 등 담은 ‘한국인의 검은 봉지’... 아사 위기 한센인 마을 살리다

5월 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서쪽 땅그랑의 시타날라 마을에서 집집마다 검은 봉지 전달식이 열렸다. 불품은 없지만 제법 두툼한 봉지 안에는 쌀 5kg, 인도미(현지 라면) 20개, 불닭볶음면 4개, 마스크 4장, 손 소독제 100ml 1통이 들어 있었다. 우리나라 쪽방촌을 떠오르게 하는 비좁은 골목길 단칸방에서 물건을 받아 든 이들은 대부분 손발이 녹아 내린 한센인의 가족이다. 이날부터 며칠간 한센인 900여가구를 비롯해 총 1,458가구가 한국이 마련해준 선물을 받았다.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 담고 싶었으나 마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가던 길을 되돌아와야 했다.

시타날라 마을은 시타날라병원 뒤편으로 1980년대 조성된 오랑 쿠스타(orang kusta · 한센인)들의 집단촌이다. 한센인 900여명을 비롯해 사지는 멀쩡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1,400여가구 5,000여명의 보금자리가 됐다. 시타날라(1889~1958)는 인도네시아의 한센병 퇴치와 독립을 위해 싸운 의사이자 국가 영웅이다.

2017년 8월부터 최영미(49)씨 부부가 매달 두 차례씩 환부 소독 등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봉대며 연고며 약품은 대부분 자비로 충당했다. 지난해에는 한센인 자녀들을 위해 공부방도 열었다. 최씨 부부가 챙기는 한센인은 진료기록지상 899명으로 마을 전체 한센인 수와 맞먹는다. 최씨 부부는 인도네시아의 ‘소록도 천사’라 불린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봉사는 끊긴 상태다. 최씨는 “한번도 멈추지 않았던 치료와 진료를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게 됐고 3월부터는 소독약품만 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센인들은 상처 부위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주지 않으면 살이 썩어 들어간다.



최영미(오른쪽)씨가 지난해 11월 한센인 집단촌 시타날라의 마을회관 마당에서 한센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한 뒤 봉대로 싸고 있다. 땅그랑=고찬유 특파원

설상가상 한센인들은 매 끼니를 때울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일이 끊겨 공사장 막노동을 못하는 가장, 샴바느질로 먹고 사는데 그마저 일이 없어 아이들을 굶기는 엄마 등 대부분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다. 최씨는 “손발이 불편해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지나다니는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더 이상 거리에 나갈 수 없고, 구걸하며 어렵게 키운 자녀들은 인근 상가나 식당이 문을 닫자 자동적으로 실업자가 됐다”고 전했다.

사실 한센인들의 처지를 처음엔 외면하고 싶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마다 힘든 상황, 5,000km나 떨어진 머나먼 이국의 빈민층을 챙길 여력이 우리에게 있을까 반문했다. 반신반의하며 올린 지난달 23일 온라인 기사(인니의 소록도 천사, “아사 위기 한센인 도와달라”)에 한국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응답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인도네시아의 한인 전자업체 (주)삼인도전자는 쌀 5kg짜리 100포대, 라면 120박스를 선물했다. 김우진(68) 대표는 앞으로 매달 100포대(60만원)



씩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현준(44) 관리이사는 “인도네시아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도 처음 한센인들의 사연을 알게 돼 감사하고 뜻 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감사하다” 고 말했다. 현지 한인 소매업체 하나마켓은 고객들의 후원으로 한 박스, 한 박스 마련한 인도미 140박스를 시타날라 마을에 배달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첫 수력발전소를 인도네시아에 건설한 한국중부발전은 시타날라 마을 1,000가구에 전달할 쌀과 라면을 지원했다. 기금의 절반은 한국 본사가, 절반은 현지 주재원 31명이 모금했다. 이덕섭 현지 법인장은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게 재난은 훨씬 가혹하다’ 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현지에서도 가장 열악한 한센인들에게 긴급 식품 지원을 결정했다” 고 말했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한 교민은 익명으로 1만달러(1,200여만원) 기부를 약속했다. 한국에선 20여명이 1만원에서 40만원까지 후원 계좌를 통해 십시일반 후원했다. 인도네시아 교민들도 다수가 참여했다. 500만루피아(40만원)를 후원한 한 교민은 “마침 월급날이라 참여하게 됐다” 고 속سر리워했다.

덕분에 당초 후원이 부족하면 한센인 중에도 극빈자에게만 나눠주려던 계획은 보다 풍성해졌다. 한센인 가구뿐 아니라 가난한 마을 전체 가구에 모두 쌀과 라면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한번에 그치지 않고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대비해 추가 지원할 물량도 확보했다. 최씨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나, 한편으로 걱정했는데 예상을 뛰어넘은 후원에 감사한 마음뿐” 이라며 “한국도 너무 어려운 시기일 텐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아사 위기에 처한 한센인들을 살렸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한국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쓰레기더미가 산처럼 쌓인 쓰레기산 마을 등에 사는 현지 빈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지진 홍수 등 인도네시아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빛났다” 라며 “양국이 형제국임을 실감하게 된다” 고 말했다. 우리는 5,000km나 떨어진 이국의 굶주리고 헐벗은 누군가를 살렸다. 값없이 나누는 선한 영향력은 그래서 값지다.

(기사: 한국일보 고찬유 특파원)



인도네시아 땅그랑의 한센인 집단촌 시타날라 마을 주민들이 4일 한인들이 선물한 쌀과 라면을 받고 있다. 최영미씨 제공



### 죽은이네 🌵🌵

엄마, 아빠와 막내 서은이는 유튜브를 따라 홈트(가정내 체력강화 운동)를 하며 확 찌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방에서 마지막 2세트, 1세트 까지 땀

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둘째 언니는 며칠 전 달고나 커피로 '인내는 달다'를 몸소 보여주더니 오늘도 주방을 선점하고 무언갈 하고 있네요. 언니~ 넉넉하게 해. 큰언니는 뭐... 여전하고. 전 효녀라서 김치 담그는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엄마~ 파는 몇센티로 자를까요?



### 승우네

사진속 바리깡을 든 손은 엄마손이 아니라 아빠손이에요. 겁이 많아서 엄마는 못하네요. 근데 여기 잘하네요. 가장 핫한 박새로이 스타일로 해주시고 수박까지 주시니 다음에도 여기서 머리해야겠어요.

안녕들 하십니까?  
우리 이웃은 대규모 사회적 제약 기간동안  
집에서 혹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일상을  
들여다 봤습니다.



## 네 지붕 네 가족 이야기

코로나19 사회적제약 일상 적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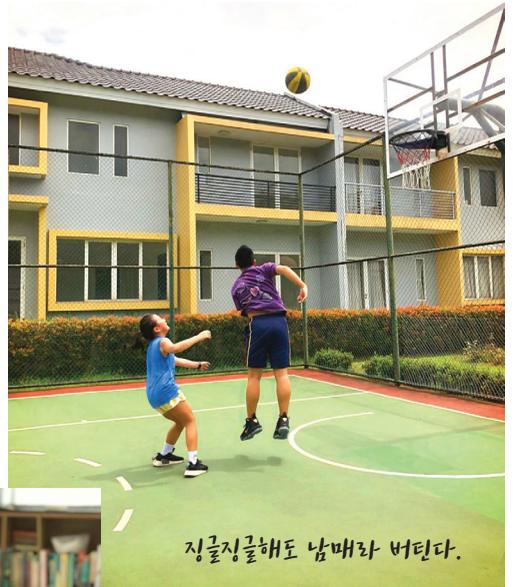


### 재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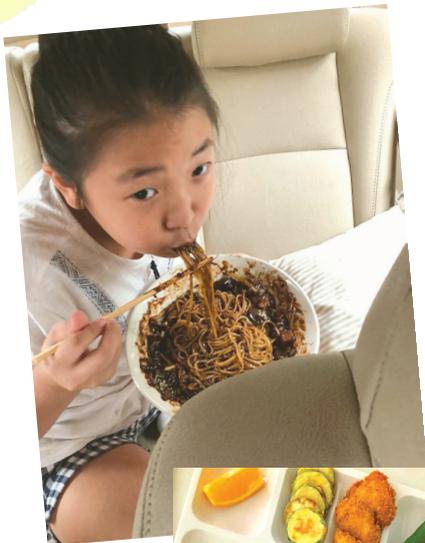
우리를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국민으로 부른다는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웨밀리 바이러스 버스터즈인 관계로 기내식을 먹을 때 빼고는 장비를 벗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 받은 생각 지도 않았던 종합선물예에 감동해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인삼즙을 바로 먹고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였습니다.

방학맞이 댄스파티를 친구들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곧 흥이 나고 재밌었습니다. 사람은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징글징글해도 남매라 버틴다.



예뻐지기가 그리 쉽다냐!

신개념 드라이브 스텝  
feat. 00성



### 윤성이네

자식농사를 파농사 하듯이 정성껏 하시는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이고자 식판 배식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절도있는 식사예절도 배우고 현재로는 식사시간이 즐겁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모집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인도네시아거주 고등학생

모집기간

2020. 6.1(월) ~ 7.31(금)

제출서류

관심분야 기사 혹은 에세이(A4 한두 장 분량),  
학생증사본

제출방법

간단한 프로필과 관련 서류를  
haninnewsinni@gmail.com으로 송부

접수 및 문의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0818 711246

# 도전하니 청춘이다

따뜻한 감성으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할

**한인뉴스 학생기자 모집**





## “호환·마마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로 바빠진 인류사의 클래식퍼보드]

글: 황준규 (신한은행 부장)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비디오들을 시청함에 따라... (중략)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비디오 테잎으로 영화를 볼 때마다 지겹도록 듣던 불법비디오 퇴치영상의 이 문구는 요사이 필자의 기억에 자꾸 소환되곤 한다. 그 이유는 해당 영상이 호환, 마마가 과거 인류에게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짐작케하는 바, 코로나 또한 ‘호환’, ‘마마’ 와 함께 향후 언젠든 인류사를 논할 때 마다 등장하게 될 소재이며, 코로나와 함께 지금 인류는 그 역사의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음을 매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 신생 바이러스는 단순히 보건의 차원을 넘어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등 인류의 행동양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전대미문의 촉매제가 되어버렸다.

다행히 한국은 클럽발 재확산 우려마저 누그러들며 시민들이 천천히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하루에도 수백명의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며 1년중 가장 소비가 늘어나는 르바란 특수 또한 봉쇄령으로 지워지고 말았다. 당연히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 바, 한계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직업상) 가장 생생히 목격하고 있는 요즘이다.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초래하고 있는 COVID19의 비극은 (지난 칼럼에도 언급했듯이) 100년전의 세계대공황을 방불케 할 만큼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쇼크를 주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상기한대로 이를 훨씬 뛰어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사태 이후로 인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 할 거라는 예측마저 이미 구태의연한 표현이 되었을 만큼 인류의 삶에 단단히 음각되어 지울 수 없는 판화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판화가 음각만이 아닌 양각도 있어야 완성이 되듯 일각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점령한 COVID19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쉽없이 달려온 인류에게 ‘고찰의 시간’ 이라는 씬표를 갖게해 줄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필자

또한 최근 몇개월간의 PSBB 기간 동안 주중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한 저녁 횡수가 지난 10여년 간의 그 횡수 보다 많은 듯 하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COVID19로 인해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와 자동차가 사라진 덕분에 최근 몇년간 이어진 기록적인 더위가 잦아지는 등 지난 한세기 동안 인간의 폭주로 병들어 가던 지구가 다소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또 앞으로 겪게 될 것처럼 지금까지 세계적인 유행이 된 감염병들은 시대를 전환하는 분수령이 되었었다. 먼저 1347년 부터 5년 동안 유럽인구의 30%를 죽게했던 페스트(흑사병)는 인류 최초의 생물전(?)으로 활용되었는데 당시 제노바와 몽골군 전쟁에서 몽골군이 퇴각하며 몽골군 내에 돌던 역병으로 죽은 시신을 제노바 성내에 던져 놓고 가며 페스트가 전 유럽에 창궐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페스트 조차도 공격적인 면이 있었는데 페스트 이후 살아남은 자들은 인구감소에 따라 고용가치가 상승하며 과거의 가난과 기근에서 벗어나고 국민들의 토지소유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딸들에게도 부동산이 상속되게 되었다고 한다. 죽음의 시대가 생명의 시대로 급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 유명한 ‘마마’ 인 천연두는 페스트보다 인류 역사에 더 큰 영향을 끼쳤는데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에서의 ‘균’ 이 바로 천연두이다. 가축들과 살면서 천연두에 면역이 생긴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할 때 가져간 진정한 신무기는 총이 아닌 바이러스였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상륙한 이 바이러스의 엄청난 살상력에 의해 원주민들이 몰살하게되며 200명이 채 안되는 스페인군은 수천년 이어온 안데스문명의 마지막 제국 ‘잉카’ 의 8만 군대를 어렵지 않게 굴복시킬 수 있었다. 또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이 무시무시한 천연두로 인해 이천만명의 인구가 한세기만에 백만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라틴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미국의 탄생 또한 천연두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천연두는 우리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있는데, 청나라의 승리가 확실했던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이 조선을 정복하지 않고 급히 협상국면으로 전환하게 한것이 천연두 때문이었다는 국사학자의 의견이 많다. 마지막으로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세기 만에 다시 조명받고 있는 스페인 독감은 1차세계대전으로 유럽에 파견을 간 미국인이 최초 전파자 였다고 하는데 1918년 부터 1920년까지 최소 5천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배출한 바, 당시 가장 많이 전염이 된 독일군의 전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세계질서가 바뀔 것이며, 세계는 이전과 같이 절대도 돌아 갈 수 없을 것’ 이라는 예측은 이제 식상하게 들릴 만큼 우리는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받아 들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비록, 향후 세계가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일 일 수도 있으나 “한 가지 미래만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한 도박이라는” 어느 미래학 석학의 말처럼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세심한 액션플랜을 준비한다면 모두가 넘어지는 위기의 상황에서 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두발 딛고 서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준비한 자들만이 누리는 생존의 비결은 결국 그 주체가 국가든 개인이든 향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전세계가 한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 동부자바한인회, 수라바야시와 동부자바주에 쌀 6톤 지원



동부자바주청사 전달식. 좌측부터 김태현 부회장. 이경운 한인회장, Khofifah 동부자바 주지사. 동부자바 코비드19팀, 이대섭 사무총장. 한인회 여직원

동부자바 한인회(회장 이경운)는 동부 자바 내 한 인기업인 CJ와 미원 후원으로 수라바야 시청과 동부자바 주청에 각각 쌀 3톤씩을 지난 5월 15일(금)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경운 한인회장은 수라바야 트리 리스마하리니(Tri Rismaharini)시장과 코피파(Khofifah)주지사에게 한인동포 및 한인기업에게 코로나 대처상황 전달 및 유사시 보호 요청을 전했다.

이에 코피파(Khofifah) 주지사는 부카 뿌아사를 같이하면서 “한인회 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



수라바야 시청 전달식. Tri Rismaharini 시장, 이경운 한인회장, 이대섭 사무총장, 김태현 부회장

며 한인 동포 사회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동부자바 주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중이며 주정부내 시장 및 군수 SNS 계정을 만들어 매일 논의 중이다” 고 한인사회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수라바야 Tri Rismaharini 시장과 코피파 (Khofifah) 동부자바 주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한인회 측에서는 이경운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김태현 부회장, 이대섭 사무총장, 한인회 여직원이 참석했다.

또한 동부자바한인회는 한인 동포차량에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어선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 유린 사건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으로 ‘한국-인도네시아 우리 함께 코로나 극복하자 Indonesia - Korea, Mari Kita Bersama Melawan COVID-19’ 차량용 스티커 한인회에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CJ 바이오 인도네시아 한인회 후원금 전달

이경운 한인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를 추가 구매해서 한인동포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 이라면서 “인도네시아와 동부자바지역 코로나19 현황 브리핑 자료를 매일 배포하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동부자바 한인회는 영사 협력원 지원을 통해 한인동포 영사조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공:한인포스트)

## Mari Kita Bersama Lawan COVID-19



땅그랑반튼한인회는 르바란을 앞두고, 땅그랑 시와 군에 코로나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현지 지역주민을 위해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땅그랑 시장과 군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성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로 여러번 “감사합니다”를 전해 한국인과 현지인이 함께 고통과 정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후원품: 쌀: 5kg, 1,500개, 라면: 750박스, 식용유: 1리터 1,000개, 방호복: 700벌, 마스크: 30,000장

(제공: 땅그랑 반튼 한인회)

## 이웃과 함께 COVID 19 극복을 위한 나눔 이야기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송광중)는 19-20일 2일간 나눔의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함께 현장에 동참하신 자문위원님, 함께 참여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하여 주신 자문위원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추천하신 기부할 단체 9곳을 방문하며 르바란 명절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세호수석부회장님.마스크 2회에 8000장 기부 이정호자문위원님 불닭면 20.000개 기부해 주셨습니다.

1. 사랑에 전화 - 마스크 800장 라면 200박스
2. 해피밥퍼 - 라면 100박스 마스크 600장
3. 찌까랑 수녀원 - 마스크 500장 라면 40박스
4. 버카시 고아원 - 라면 40박스 마스크 500장
5. 버카시 고아원 - 라면 20박스 마스크 500장
6. 꼬따 뚜아 철거민 - 라면 25박스 마스크 500장
7. 국제학교 - 라면 44박스 마스크 1000장
8. 꼬망 - 마스크 300장, 라면 30박스
9. 꼬라빠가딩 길거리 - 마스크 100장 .라면 10박스 기부 하였습니다.

(제공: 민주평통 동남아남부 협의회)

## 반란의 시대



스람(Seram)섬. 왼쪽 밑에 암본(Ambon)섬

지난 호에 이어

그는 암본에서 회합을 통해 남말루꾸 분리독립에 대해 KNIL 부대 청년들과 저명한 마누사마의 지지를 요구했고 필요하다면 남말루꾸 대표회의 의원 전원이 목숨을 내걸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정작 독립선언은 수모킬 박사가 아니라 당시 남말루꾸 대의원 의장 J. 마누후뚜가 발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 마누후뚜는 노회한 정치가답게 수모킬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 한 것이다. 그는 결국 남말루꾸공화국 독립선언서에 서명도 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만 그의 재임기간은 채 10일도 되지 못했다. 수모킬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KNIL 부대원들과 ‘위대한 동쪽당’ 당원들을 움직여 열렬히 분리독립에 대한 사전홍보를 전개해 말루꾸의 민심을 휘어잡은 수모킬은 자신감을 얻어 자카르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거

나 투옥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1950년 4월 25일 마침내 남말루꾸공화국(RMS)은 독립을 선포했다.

그는 독립선언과 함께 RMS의 외무장관이 되었다가 며칠 후인 5월 3일 마누후뚜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1950년부터 1966년까지 무려 16년간 RMS의 대통령이었으나 수도 뉴빅토리아의 화려한 집무실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기간은 불과 6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남말루꾸의 독립선언은 필연적으로 합중국과의 전쟁을 불러왔고 수모킬은 정부군의 공격을 피해 은신처를 전전해야만 했던 것이다.

남말루꾸 독립선언은 특히 KNIL 부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KNIL 부대 해산이나 합

주국군과의 통합에 결사반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랜 전우였던 왕립 네덜란드군을 따라 네덜란드에 가기를 기대했지만 네덜란드군은 KNIL을 그렇게까지 살갑게 여기진 않았다. 그들은 KNIL부대원들을 기어이 인도네시아에 떼어 놓고 가려 했던 것이다. 근 5년간 KNIL 부대는 네덜란드군편에서 공화국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가 악수를 나누더니 별안간 전쟁도 끝나고 주권이양도 이루어지면서 KNIL 부대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공화국군과의 통합을 거부한 상태에서 네덜란드로부터도 버림받자 절망한 그들은 합주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남말루꾸 공화국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RMS의 반란적 독립선언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정부는 우선 평화적 타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 자카르타 정부는 말루꾸 출신의 저명한 인사들을 암본에 보내 수모킬과 그 각료들을 만나 뜻을 되돌리도록 설득하려 했으나 지지부진하던 회담은 결국 실패했고 이제 군사작전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았다. 그래서 1950년 7월 까월라랑

대령을 사령관으로 한 정부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정부군측 중심인물은 까월라랑 대령과 슬라멧 리야디 중령이었다. 합주국군 사령부는 당시 마카사르에 본부를 두고 있던 동인도네시아 지역군 사령관 알렉스 에버트 까월라랑 대령 휘하에 남말루꾸 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중부자바 솔로 출신 스노빠티 부대 제5여단장 슬라멧 리야디 중령을 RMS 진압작전의 야전사령관으로 불러 들였던 것이다.

까월라랑 대령과 리야디 중령의 조합은 꽤 흥미롭다. 당시 30세였던 까월라랑 대령은 미나하사족 후손으로 자카르타의 자티느가라에서 태어나 반둥 소재 네덜란드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는데 그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정부 말기에 네덜란드군 장교로 임관했던 단 일곱명의 현지인들 중 한명이었다. 다른 여섯명은 GPH 자띠꾸수모, 압둘 까디르, 나수티온, 시마뚜뵙, 아돌프 렘봉, 모꼬긴타 등으로 독립전쟁이 벌어지자 공교롭게도 이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공화국군에 합류해 전공을 세웠고 훗날 주요보직을 섭렵하며 인도네시아군의 기둥이 된다.



자띠꾸수모



압둘 까디르



까월라랑



나수티온



아돌프 렘봉



시마뚜뵙



모꼬긴타

한편 슬라멧 리야디는 솔로 출신으로 당시 23세에 불과했고 일제강점기엔 어부로 일하다가 독립전쟁 첫날부터 게릴라로 참전해 수라카르타 총공세로 솔로를 점령하면서 발군의 야전지휘능력을 보여준 바 있었다. KOPAS MALSEL(남말루꾸 군사령부)의 야전사령관으로 발령날 당시 리야디는 서부자바에서 까르또수위르죠의 다룰이슬람 반군들과 싸우던 중이었다. 그의 부대가 애당초 중부자바의 솔로를 떠나 처음 서부자바에 왔던 것도 반동에서 벌어진 APRA 반란의 잔당소탕을 위해서였으므로 리야디는 거의 모든 반란사건에서 진압군으로 나서고 있었던 셈이었다.

이그나티우스 슬라멧 리야디는 1927년 7월 26일 수라카르타에서 군인인 아버지와 과일장사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 유아시절 삼촌에게 입양되었다가 수카르노처럼 큰 병을 앓고 자바전통에 따라 이름을 바꾼 것이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그는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성장했고 네덜란드 식 학교에서 교육받았다.

일본이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점령했을 때 리야디는 일본이 후원하는 해양학교에서 공부했고 졸업 후 항해사로 일했다. 그는 바다에 나가지 않을 때엔 자카르타 감비르역 가까운 숙소에서 본의 아니게 항일투사들을 많은 만나게 되었는데 1945년 2월 14일 일본의 패색이 짙어질 즈음 친구들과 함께 숙소를 이탈해 수라카르타로 돌아가 지하 저항군에 합류했고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일본군과 싸웠다.

일본 패망 후 리야디는 게릴라부대에 합류했고 발군의 지휘능력을 보여 급속 진급해 수라카르타에서 제26연대를 지휘하게 된다. 1947년에 벌어진 네덜란드군의 제1차 총공세에서 리야디는 암바라와와 스마랑 같은 중부자바의 주요도시에서 부대를 지휘했고 머라빠 화산과 머르바부에 이르는 지역을 관할했다. 1948년 9월 리야디는 다시 승진



네덜란드군 장군 앞에서 당당하던 슬라멧 리야디 중령

해 4개 대대와 학생군 1개 대대를 지휘하게 된다. 2개월 후 네덜란드군이 제2차 총공세를 벌여 당시 공화국 수도였던 족자를 함락시킬 때 리야디와 그의 부대는 끌라멘 지역을 돌파해 솔로에 접근했지만 네덜란드군의 족자점령이 더 빨랐다. 리야디는 나중에 수라카르타 총공세를 벌여 솔로를 탈환하는 데 앞장 섰다.

독립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는 서부자바로 이동해 APRA 반군과 다룰이슬람 반군에 맞섰고 이번엔 RMS 반란진압을 위해 말루꾸의 최전선에 배치된 것이다. 리야디 중령의 제5여단 스노빠띠 부대는 마카사르에서 재정비하면서 마나도로부터 도착하는 워랑 대대, 5월3일 대대의 합류를 기다렸다. 거기서 리야디는 앞서 벌어진 압둘 아지스 반란 집압임무로 미리 와 있던 수하르토 중령과도 잠시 만났다. 접하기 쉬운 사료들 속에서 내로라하는 쟁쟁한 다른 장령들보다 수하르토의 군행적이 더욱 자주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남들보다 자주 군 작전에 동원되었다기보다는 훗날 32년간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서 장기집권 하는 동안 그의 업적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미화가 이루어진 결과이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특별히 두각을 보이진 않고 있었다.

까월라랑 대령은 먼저 전선으로 출발했으므로 리야디는 마카사르에서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가 까월라랑을 처음 만난 것은 1950년 7월 17일 부루섬의 남레아 해안을 바라보는 KRI 빠띠 우누스호의 선상 브리핑에서였다.

RMS반란 진압작전은 부루섬 상륙으로 시작했다. 태평양의 섬들마다 치열한 공성전을 벌이며 차근 차근 일본 본토를 향해 치달던 태평양전쟁 당시 미해병대처럼 합주국군은 동쪽으로 진군하면서 삐루, 스람 반다, 따님바르, 게세르 섬 등에서 상륙공격작전을 벌였고 남말루꾸의 섬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며 암본의 RMS 반란정부에 대한 봉쇄선을 구축했다.

첩보에 의하면 RMS의 주력은 KNIL 2개 대대와 2개 중대의 KST 특수부대, 그리고 서부 자바의 바뚜자자르 기지를 출발해 바로 몇 주전 도착한 KNIL 그린베레 부대였다. 이 그린베레 중대는 예전 APRA반란에 가담해 반동을 쫓대발으로 만들었던 베스털링 대위의 부대였다. 그외에도 스람섬과 암본섬엔 2천여 명 규모의 청년민병대가 무장하고 있었다.



마카사르에서 만난 까윌라랑 대령(우측)과 수하르토 중령(좌측)

부루섬을 함락시킨 지 닷새 만에 325 대대와 5월3일 대대는 다시 KM 와이켈로, LCI 스톱보글, LCI 트루펜보글 및 여러 척의 상륙정에 나누어 타고 리야디 중령은 사령선인 KRI 라자왈리호에 올랐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스람섬의 삐루시를 장악하는 것이었고 까윌라랑 대령은 이를 ‘과자르 작전(여명작전)’이라 명명했다.

해안에 상륙한 부대는 오후 15시00분 이미 삐루시 외곽에 도달했다. 삐루엔 KST 특수부대 출신 KNIL 부대가 방어하는 지역이었다. 그때 5월3일 대대 정보장교 깔랑이 중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들이 마주한 RMS의 지휘관 누씨 대위는 예전 KST 부대에서 깔랑이 중위의 동료였으므로 교전을 벌이기 전 우선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투항을 권유하겠다고 리야디 중령의 재가를 요청한 것이다. 친구에게 총을 겨누고 싶지 않은 그 진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선의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깔랑이 중위는 까잇질리 병장, 그리고 남레아에서 RMS 지휘관이었다가 전향해 5월3일 대대에 합류한 레스딸루후 하사와 함께 백기를 들고 RMS 진영으로 넘어갔으나 한 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자 리야디 중령은 예정대로 공격을 시작했다. KRI 라자왈리의 함포사격을 등에 업고 시작한 공격은 시가전 양상을 보여 집집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끝에 한 시간여 후인 18:30시 양측에 큰 피해를 남기면서 결국 정부군이 삐루시를 장악했다. 깔랑이 중위와 그 부하들은 삐루시 중앙광장에 처참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반군들은 그들을 모욕하며 모진 고문을 한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이다. 깔랑이 중위는 남레아 전투에서 오웬기관단총 한 자루와 탄창 4개만을 가지고 두 개의 RMS 기관총진지를 무력화시켰던 용맹스러운 군인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 재무장관 “국가경제회복 프로그램은 641조 루피아 규모”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가경제회복(PEN-Pemulihan Ekonomi Nasional) 프로그램에 641조 1,700억 루피아를 총당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영 안따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내역은 2007년부터 빈곤층 지원 사업인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 ‘희망 가족 프로그램(PKH-Program Keluarga Harapan)’ 이나 필수품의 지급 등 사회보장에 174조 1,000억 루피아, 개인소득원천

징수세금(PPh21)과 수입 시 선불로 지불하는 소득세(PPh22), 법인의 예납세금(PPh25)의 감면 등 세제 완화에 123조 100억 루피아, 국영 기업의 보상에 90조 4,200억 루피아 등이다.

스리 장관은 “경제 대책을 촉진하겠다” 고 말했다.

PEN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정령으로는 자금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BI)이 인수하기 위한 국채와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담고 있다.

## 세계은행, 인니 코로나19 대책 돕는다...7억 달러 추가 용자 지원

세계은행은 15일 코로나19 관련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지원 확대와 금융부문강화 정책을 위해 7억 달러를 추가 용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역은 사회보장지원 프로그램에 4억 달러를 추가 용자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3년 전에 시작한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지원 프로그램인 ‘가족희망프로그램(PKH)’ 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00만 가구에서 1,000만 가구까지 확대했다. 세계은행의 지원은 해당 1,000만 가구의 생계유지지원과 사회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호 시스템 확충에도 쓰일 계획이다.

또 다른 코로나19 대책 프로그램인 금융부문강화에 3억 달러를 추가 용자한다. 세계은행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탄력성 향상 등 목적으로 3억 달러를 용자 지원한 바가 있다. 이번 추가 용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부문의 회복과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데 투입된다.



## 인도네시아, 이슬람 명절 맞아 죄수 10만5천명 감형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종료...코로나로 차분한 르바란 명절  
이슬람 원리주의 따르는 아체주는 예년처럼 대형 합동 기도회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24일 라마단 종료를 기념, 수형자 가운데 이슬람 신자(무슬림)와 소년범 10만5천325명을 대상으로 특별감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형 대상자 가운데 잔여 형기가 모두 사라진 365명이 이날 석방됐다고 일간 콤포스 등이 보도했다.

초승달 관측 결과 이슬람력으로 9월을 뜻하는 라마단은 올해 4월 24일부터 시작해 이날 끝났고, 이슬람력으로 10월이 시작됐다. 무슬림은 라마단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한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매년 라마단 종료 기념 명절인 '르바란' (이둘피트리)에 무슬림 죄수 가운데 특별감형 대상자를 선정한다.

테러나 안보위협, 부패, 반인권 범죄, 마약사범은 감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감형은 15일, 1개월, 1개월 15일, 2개월로 구분됐다.

감형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북수마트라에서 1만3천여명, 서자바와 동자바 각 1만1천여명 등이다.

교정 당국은 "감형 대상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이들이 사회에 복귀한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10만5천여명의 감형 조치로 교도소 식비만 해도 530억9천만 루피(45억원)가 절약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인권부는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전국에서 5만

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약 4만명을 출소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이달 17일 기준 23만명이고, 이 가운데 17만여명이 무슬림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석방자들까지 쏟아져 나오다 보니 강·절도 사건 등 범죄가 늘고 있다.

교정 당국은 대규모 가석방을 통해 범죄율이 증가했더라도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차단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사태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 르바란 명절을 맞았다.

코로나 차단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이 시행 중인 자카르타 수도권 등 대도시는 예배당 내 합동 기도회가 금지됐고, 친·인척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누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골 마을 등 지방에서는 여전히 합동 기도회를 열고, 친·인척, 이웃 간에 잔치를 열어 함께 식사하는 곳이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수마트라섬 아체주는 예년처럼 모스크에서 대형 기도회를 열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949명이 추가돼 총 2만1천745명이고, 사망자는 25명 늘어 총 1천351명이다.

[연합뉴스]

## 인니 국제 모터쇼, 자카르타 개최는 10월 말로 연기

인도네시아 자동차제조업협회(가이킨도)는 오는 8월 7일~17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모터쇼 ‘가이킨도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GIIAS)’의 개최 시기를 10월 22일~1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이킨도 요하네스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이 최우선이라고 밝힌 뒤 “자동차 산업은 재기하기 위한 무대가 필요하다”며 “(중단이 아닌)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이킨도는 코로나19를 둘러싼 국내 상황은 6월에 개선되어 7월에는 서서히 일상생활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3월 20~29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의 GIIAS는 9월 2~6일로 연기한다.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 북부 수마트라주 메단의 개최에 대해서는 각각 10월 하순과 11월 하순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중지를 결정했다.

## 인니 은행 업계, 코로나19로 협조 융자 축소 예측

인도네시아 은행 업계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협조융자) 대출 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지 매체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신디케이트 대출을 같은 대규모 대출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산하의 은행개발기구(LPPI) 관계자는 “대출 희망이 있더라도 은행은 리스크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은행 뱅크 뽀르마따(PT Bank Permata)의 관계자도 “대출 사업은 연초부터 정체되어 있다”며 “대출 사업의 목표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영 은행 뱅크 느가라 인도네시아(BNI)의 샤리아(이슬람 법) 금융 부문, BNI 샤리아(BNI Syariah)는 올해 수도 인프라, 대중 교통, 제조업 등 3개 분야 4개 사업에 전년 실적 대비 21% 증가한 총 9조 9,000억 루피아의 신디케이트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은행, 글로벌채권 발행으로 4월 외환 보유액 6% 증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8일, 4월말 외환 보유액이 1,27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월말의 1,210억 달러에서 5.7% 증가했다.

중앙은행은 4월 외환 보유액에 대한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채권 발행이 기여했다고 설

명했다. 건조한 국내 경제를 배경으로 외환 보유액은 여전히 충분한 수준에 있다고 발표했다.

외환 보유액은 수입 대금의 7.8개월 분 또는 수입 대금과 대외 채무 상환을 맞춘 금액의 7.5개월 분에 해당한다. 또한 국제 표준인 수입차 대금 3개월 분을 웃돌고 있어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 로드맵, 6월부터 5단계로 마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인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의 6월 해제를 상정하여 이후 경제 회복을 향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 조정부가 책정 중인 초안은 6월부터 5단계를 거쳐 7월 말부터 늦어도 8월 초에 모든 경제 활동의 재개를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초안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제1단계는 타인과의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노력을 호소하면서 기업 간 거래의 재개를 인정한다. 그러나 상업 시설의 영업이나 야외에서 3명 이상의 집회 등은 계속 금지한다.

8일부터 14일까지의 제2단계는 상점, 시장, 쇼핑몰 등 상업 시설의 영업 재개를 인정한다. 미용실과 스파 등 직원과 고객이 농밀하게 접촉하는 사업은 영업을 금지한다.

학교나 박물관 등 교육 문화 기관의 재개는 6월 15일부터 제3단계를 예정하고 있다. 7월 6일부터인 제4단계에서는 레스토랑과 카페 등의 음식점, 헬스 클럽 등은 단계적으로 영업 재개를 인정한다. 지역 이동과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제한적으로 해금한다. 모두 그 평가를 실시한다.

7월 20일부터의 제5단계에서는 각 단계의 결과를 최종 평가한 다음 경제와 사회 활동의 전면 재개를 목표로 한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로드맵의 내용은 모두 책정 중간 단계의 것”이라며 “로드맵 이외에도 PSBB를 취소한 후 각 분야에서 지켜야 할 약속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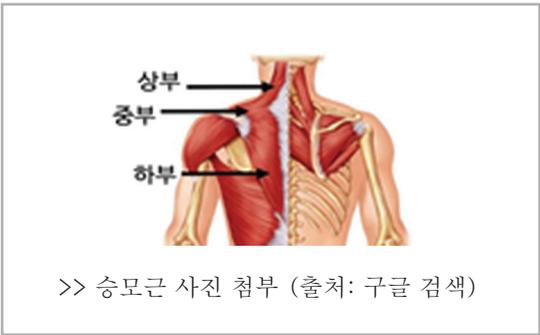
# 김승욱 코치와 함께하는 꽃청춘 프로젝트 6탄



**"만성적으로 어깨가 빠근하다면 어깨 움직임이 살아나야 합니다."**  
- 김승욱(Ryan) 코치

빠근하고 딱딱하게 뭉쳐있는 어깨. 그 말은 어깨의 움직임과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질적으로 어깨가 아파서 운동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어깨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어깨 주변의 움직임만 살려줘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어깨가 아프다고 스트레칭과 마사지로만 풀려는 고정관념을 저 멀리 던져 버리자!

## 테라밴드를 이용한 Y레이즈 운동



>> 승모근 사진 첨부 (출처: 구글 검색)

1. 밴드걸이에 밴드를 걸고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잡아준다.
2. 어깨가 과하게 들리지 않게 내려주고 손은 바깥으로 약간 돌린다는 느낌으로 준비한다.  
(어깨 위치를 갈비뼈 2번 높이와 비슷하게 맞추면 된다.)
3. 밴드를 몸 바깥쪽으로 당기며 두 손을 머리 위로 넘긴다.
4. 견갑골 사이를 약간 잡아주며 어깨가 과하게 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며 팔을 뒤로 넘겨준다.
5. 이 때 느낌은 견갑골 가운데와 하부(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를 같이 써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서 10회 정도 천천히 반복한다.

## 테라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 강화 운동

1. 밴드를 사진과 같이 당겨 잡는다.



2. 뒤쪽 어깨부터 견갑골까지 힘을 약간 주어 안정된 자세를 잡는다.
3. 팔을 L 자로 만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린다.
4. 이때 어깨가 과하게 들린다면 통증이 생기니 자세를 잘 유지하며 천천히 운동한다.
5. L 자가 만들어졌을 때, 팔꿈치는 어깨보다 약간 아래에 오도록 하며 아래 승모근 쪽도 살짝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실시한다.
6. 이렇게 10회 정도 반복해 준다.

**Point**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 엉덩이와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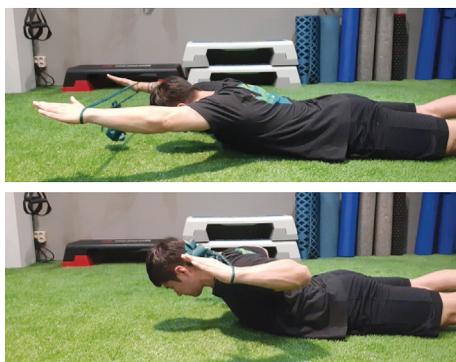
## 테라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 안정화 운동

1. 손을 어깨너비로 벌렸을 때 밴드가 약간 당기는 너비로 밴드를 묶어준다.
2. 손을 양 옆으로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을 유지한다 그러면 어깨 후면 부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 느껴진다.
3. 이때 팔을 앞으로 내밀어 손을 어깨위로 쪽 들어주면 되는데 동작은 천천히 하며 어깨의 위치를 잘 생각하며 과도하게 안 들리게 동작을 실시한다.
4. 어깨 후면 부에 힘이 들어가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주면 된다.



**Point**

어깨 후면 부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동작을 실시하되 안정성이 떨어진다(밴드의 흔들림이 많아지는 경우) 느껴질 시 동작 속도를 더 천천히 한다.



## 테라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 안정화 운동

1.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팔을 앞으로 뻗어 밴드를 손목에 끼운다.
2.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며 천천히 견갑골을 모은 상태로 팔꿈치를 천천히 뒤로 모아준다.
3. 머리는 중립상태를 유지하며 동작을 10회 정도 실시한다.

**Point**

동작 내내 견갑골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한다.



"보통 어깨가 아프면 스트레칭과 마사지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어깨 가동성 운동, 강화운동, 안정화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깨 가동성 운동과 강화운동을 해주었다면 어깨의 중립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안정화 운동을 해주는 것이 탄탄하고 건강한 어깨를 만들어줍니다."

글: 김승욱(HUMAN BALANCE, 플라빠가당)

### 원제 : Pantun, Panduan yang Santun

네 문장으로 말해요  
시작은 재치있게  
마무리는 우아하게

헬론(Heylen) / HOTEL GRAN MELIA



\*레닝 브타위(Lenong Betawi) (브타위어는 ‘어’소리를 많이 사용)

브타위족들이 틀라유어(브타위 지방어)로 선보이는 만담형식의 (연)극이다. Lenong[레농]은 ‘라이브 코미디 쇼’라는 뜻의 인니 어다. 19세기말~20세기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약자를 도 와야 한다거나,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거나 하는 등의 교훈 을 담고 있다. 무대에 오르는 희극인들은 대본없이 콘셉트만 가지 고 극의 흐름을 쥐락펴락한다(대본이 있는 경우도 있다). 발세 진 행되는 공연도 있다. 발세 초기에는 무대 없이 마을을 돌아다니 며 야외공연을 했다.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전통음악을 곁들인다.

스위스 언어학자인 Dr. R. Branstetter는 ‘누산 따라어’의 툰(tun)을 가져왔다고 설명하는데, 툰(tun)은 ‘정렬하다, 규칙적으로 배열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판툰은 예의바르고 현명한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판툰을 읊는 사람들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들을 존경해요. 듣기 싫을 수도 있는 말을 우아한 방법으로, 예의를 갖춰 전하기 때문이지요.

학교에서도 판툰을 배우기도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약혼식이나 결혼식 같은 여러 행사에서 판툰을 접해요. 판툰을 잘 만들려면 머리 회전도 빨라야 하고 재치와 언어감각도 갖춰야 해서 요즘은 정말 판툰을 잘 만드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새 2020년 중반이 되었네요. 6월은 자카르타의 정도(定都) 493주년 생일이 있는 달이에요. 자카르타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카르타 문화가 있나요?

이번 6월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카르타지역의 토착 민족인 브타위족이 잘하는 판툰(pantun)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브타위족은 ‘판툰(pantun)’을 아주 즐겨 사용하는 중족인데요. 판툰을 즉석에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내다보니, TV에 자주 출연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바로 ‘레닝 브타위(Lenong Betawi)’라는 ‘브타위 코미디쇼\*’예요.

판툰(pantun) [발음 : 뽀뽀]

고시(옛 시)의 하나로 말라유(Melayu) 시대부터 있었다. 구두와 기록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브타위족, 미낭카바우족, 자와족, 순다족, 바타족의 토속문화이다. 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문장은 들어가는 말이고, 셋째 문장과 넷째 문장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다. 1-3, 2-4 이렇게 짝을 지어 마지막 한두음절을 같은 모음으로 반복해서 리듬감과 재미를 더한다. 짧은 두 문장에는 조연을 담거나, 윤리·도덕적인 메시지를 담도 하고, 애정을 표시하거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전환하는 말을 담기도 한다.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풍자도 물론 빠지지 않는다.

종족별로 판툰을 부르는 말이 다르다. 미낭카바우족(patun), 자와족(parik), 순다족(paparik), 바타족(umpasa)

제가 판툰 몇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판툰이 마음에 드세요?

Di jalan tidak sengaja berjumpa daun sugi  
Ingat manfaat lantas cepat dibawa

Tiada belajar yang tidak rugi  
Kecuali diri sendiri di masa tua

...

Papan lama terpecah belah  
Anak menangis meminta bola  
Jangan menyerah jangan kalah  
Semangat kita selalu menyala

...

Jalan-jalan keliling rumah  
Jangan lupa beli jarum  
Demi Tuhan aku bersumpah  
Yang kucinta hanyalah kamu

...

Habis minum kopi  
Lalu minum jamu  
Dunia ini berasa sepi  
Kalau tiada kamu

...

Duduk manis di bibir pantai  
Lihat gadis aduhai tiada dua  
Masa muda kebanyakan santai  
Sudah renta sulit tertawa

...

Jalan-jalan ke Tanjung Pinang  
Makan enak keripik kentang  
Sang pembelajar akan menang  
Bersinar terang di masa datang

...

Bunga melati berwarna putih  
Mekar mewangi indah di taman  
Bagaimana korupsi akan bersih  
Bila koruptor ringan hukuman

...

Ular sanca tidak berbulu  
Sudah pasti bukan kangguru  
Wahai corona cepatlah berlalu  
Karena mamaku tidak cocok jadi guru

...

Pak guru beli terigu  
Tak lupa membeli terong  
Perkenalkan aku member baru  
Mau ikutan komen boleh dong

...

Jangan takut  
Jangan khawatir  
Itu kentut  
Bukan petir

주변인들에게 촌철살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판툰을 만들어보시길 권해요. 조금 어렵고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해보기 전에는 모르니까요. 제가 먼저 해 볼게요.

Beli jeruk harganya murah  
Jeruk murah ada di Praha  
Janganlah kita cepat menyerah  
Ada baiknya kita berusaha

어때요? 괜찮나요?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 KACAMATA

## (인도네시아 배달음식 특집 3탄)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지난 달 소개해 드렸던 Jiwa Toast에 대한 주변 반응이 후끈후끈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시니 참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숨겨진 자카르타 맛집, 많이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도 배달음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달음식이 아닌 야!식!입니다~ 짹짹! 한국에서 야식하면 치킨, 피자, 족발, 떡볶이 등 24시간 먹을 것이 참 많죠~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단 24시간 또는 새벽까지 여는 식당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ㅠㅠ 인도네시아식 야식으로는 사뎀, 나시고랭, 미고랭, 마르따박, KFC 치킨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한때 야식의 세계에 흠뻑 빠졌을 때 즐겨 먹었던 Bakmi Babi와 Nasi Campur Babi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돼지고기가 있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Bakmi Babi와 Nasi Campur Babi의 차이는 면이나 밥이냐의 차이이고, 토핑은 Siobak(중국식 통삼겹살구이), Casiu/Babi Panggang Merah(중국식 돼지고기 BBQ), Babi Cincang(다진 돼지고기 볶음) 등으로 동일합니다. 각 식당마다 토핑으로 올라가는 재료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보통 해당 음식을 파는 식당들은 자카르타 화교 밀집거주지역인 북부 또는 서부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식당은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특히 남부 자카르타에도 있는 <KACAMATA>입니다. Kacamata? 식당이름이 웬 안경?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식당주인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자카르타에서 Bakmi Babi와 Nasi Campur Babi를 파는 식당들을 거의 섭렵해 보았는데요. KACAMATA의 Casiu Madu(꿀에 절인 중국식 돼지고기 BBQ)를 파는 다른 식당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귀뜸해 주세요~) 물론 맛있는 다른 식당도 여럿 있지만, 이 Casiu Madu 때문에 항상 다시 KACAMATA를 찾게 됩니다.

우선, Nasi Hainam Campur Spesial(74,800~80,300루피아+) 또는 Nasi Hainam Campur(63,800루피아+)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인은 아무래도 면보다는 밥심 아니겠어요? 참고로 Special이 붙은 메뉴는 짜장면/짬뽕 곱빼기처럼 일반 메뉴보다 양이 좀 더 많습니다. 메뉴에 Nasi Putih도 있지만, 육즙이 가득한 닭고기, 판단 잎과 마늘, 생강을 넣어 지은 밥인 Nasi Hainam/Hainan이 향긋하고 풍미가 있어 더 맛있습니다. 토핑으로는 Siobak, Casiu Madu, Casiu, Ayam Rebus(찜 닭고기)가 올라갑니다. 바삭바삭한 Siobak과 밥 한입 먹고, 달달한 Casiu Madu와 또 밥 한입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다른 식당은 Sate Babi(돼지고기 꼬치)를 함께 주기도 하던데, 토핑으로 Sate Babi만 추가되면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Bakmi Spesial(63,600루피아+)입니다. 토핑은 위에 Nasi Hainam Campur와 같아요. 여기 면이 특출나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주는 특제소스 또는 육수 국물에 면을 살짝 적셔 고기와 함께 먹어주면 촉촉하게 맛있습니다. 다만, 면이 살짝 뭉쳐 배달은 것이 살짝 아쉬웠어요. 그리고 같은 Special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위 Nasi 메뉴에 비해 양이 다소 적다는 것...

KACAMATA는 자카르타 내에 여러 지점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Grand Wijaya Center와 Pantai Indah Kapuk 지점만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해요. 또, 지점마다 음식 가격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마지막, 고푸드(GoFood)와 그랩푸드(GrabFood)에 등록되어 있는 지점이 각각 다른 점, 이 점 유의하시고 배달시키시면 됩니다!

이제 곧 PSBB(대규모 사회적 통제조치)가 정말 끝나겠죠??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 <배달 정보 : KACAMATA>

음식 종류 : 중국음식, 배달음식  
 가격대 : Rp 15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 시간대는 지점별 상이  
 지점 : Grand Wijaya Center (24시간),  
 Pantai Indah Kapuk (24시간), Bandengan,  
 Green Lake City, Boulevard Kepala Gading,  
 Bintaro, Pejagalan, Pluit

※ Zomato 참고



#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한동안 금요일 밤만 기다렸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다는 걸 이 드라마를 보고 알아버렸지요.

“바람 피우는 남자와 그걸 들키는 남자(손제혁의 대사).” (음... 그렇구나.....)

저는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배우들의 연기에도 감탄하고 몰입했었지만 너투브에서 인도네시아네티즌(warganet)들의 댓글(komentar)을 보는 게 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여다경(한소희 배우)은, 아니 한국어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어로 인스타 댓글 테러를 받기도 했어요. 현실 속 어딘가에 존재했을 것만 같은 여다경...(Guys...itu cuma drama...bukan kenyataan 친구들아...그건 드라마라고.. 현실이 아니라고요...) 이번 호에서는요, ‘뽕의 세계’에 나왔던 대사들을 제 맘대로 골라봤어요. 인니어 댓글도 조금 가져 와 봤어요. 그럼~ 생생한 인니어의 세계로 고고!

## ◆ 온 국민 뒷목잡게 만든 이태오의 명대사. 말인지 방구인지 리모콘 날아갈 뻔 했던 바로 그 장면이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태오)

Apa jatuh cinta itu dosa? (사랑에 빠진 게 죄야?) \*apa : 이때는 what(무엇)을 묻는 게 아니라 does, do 역할을 하는 의문표지예요~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바람 피우는 남자와 그걸 들키는 남자” (손제혁)

Ada dua tipe cowok di dunia ini. Yang selingkuh dan ketahuan.

Satu lagi, yang selingkuh tapi gak ketahuan.

→ Gak ada cowok yang gak selingkuh. Yang ada, cuma yang ketahuan dan yang gak ketahuan. Itu aja. (바람을 안 피우는 남자는 없지.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 그 차이지)

## ◆ 준영이가 엄마(지선우)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장면

“이혼하지 마. 엄마가 아빠 한 번만 봐주면 되잖아. 용서해 주면 되잖아”

Jangan cerai! Tolong maafkan ayah sekali ini saja.

Ibu bisa memanfaatkan ayah, ‘kan?



### ◆ 지선우에게 이태오란 모지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 심장을 난도질 했던 가해자 내가 죽어버린 나의 적 치열하게 증오했고 처절하게 사랑했던 당신 적이자 전우였고 동지이자 원수였던 내 남자 남편	Orang yang mengiris-iris hatiku. Musuh yang telah kuhancurkan. Suami yang kubenci setengah mati, dan cintaku terhadapnya begitu menyakitkan. Dia adalah musuh sekaligus teman di medan perang. Pria yang menjadi kawan tapi juga lawan di hidupku. Suamiku.
---	---

\*mengiris 찢다 mengiris hati (마음을 찢다, 상처를 깊이 주다) mengiris-iris hati (마음을 갈기갈기 찢다) menusuk hati (마음을 찌르다, menyakiti hati '마음을 아프게 하다' 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때) menusuk-nusuk hati (마음을 마구 찌러대다) menyakiti perasaan (마음을 아프게 하다)

\*menghancurkan 무너뜨리다, 부서버리다, 산산조각나게 하다 (내 심장을 난도질 했던.. yang telah menghancurkan hatiku) hati (1) 마음, 가슴 (2) 간(liver)

### ◆ 달려오는 트럭이 멈추고, 주저 앉아 버린 이태오(왜 안 죽었지 이노무시키...)

**그런 아버를 안아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준영이는 그 현실에서 달아나 버리죠. 가장 여운이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지선우에게 현타가 오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긴 했을까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한 번은 있었을까 그 동안 매달렸던 것들은 모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깨달은 뒤엔 모든 게 늦어버린 뒤였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Mana yang seharusnya kupilih? Pernahkah ada pilihan bagiku? Pernahkah ada kesempatan untukku? untuk memutar kembali waktu? untuk memperbaiki kesalahanku? Semua yang aku kejar selama ini, ternyata, hanya hal yang sepele. Terlambat kusadari. Semua sudah terlanjur terjadi. Aku, kehilangan sesuatu yang paling berharga bagiku.
---	--

◆ *Komentar 1* : Gila bapaknya drama banget. Emaknya juga sama aja. Yang paling jadi korban itu anaknya. (미쳤네 준영이 아빠 완전 드라마다. 애엄마도 똑같애. 최대 피해자는 준영이야)

◆ *Komentar 2* : Anak memang selalu jadi korban akibat perceraian mbak. Itulah kenyataannya dalam real life. Makanya, ketika sudah menikah, jangan terlalu gampang mengambil keputusan untuk bercerai. Jika tidak punya anak, itu beda lagi. (이혼 때문에 애들이 늘 피해를 보죠. 그제 현실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선 너무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말아야죠. 애가 없으면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

◆ *Komentar 3* : Terbuang percuma kuota gue. Endingnya kok gitu sih?(인터넷 쿼터 다 날아갔네. 엔딩 어쩔...)

◆ *Komentar 4* : Ya... kecewa kalau endingnya cuma kayak gini.. gantung (하... 실망이야. 엔딩 무엇...? 이도 저도 아니고 말이지... / 엔딩 이게 최선인가요....) (\*gantung : 애매...하네 = gak jelas)





### ◆ 마지막회에서 카페를 차린 예림이가 선우에게 보낸 이메일. 선우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p>오랜만이야 언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준영이 소식은 아직인거야? 난 어느정도 자릴 잡아가는 것 같아. 단골들도 늘었어. 내 선택에 후회는 없어.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후회 안 하려고 노력해. 결국 사는 건 자기가 선택한 몫이니까. 이 메일을 볼 때쯤엔 언니가 편안해져 있길 바랄게. 후회도 자책도 그만하면 충분해. 이제 그만 모든 걸 용서했기를. 그 누구보다도 언니 자신을 말이야.</p>	<p>Sudah lama tidak mengobrol ya, Kak. Bagaimana kabar Kakak? Jun Young masih belum ada kabar, kah? Bisnisku sudah mulai stabil. Pelanggan juga sudah mulai banyak. Aku tidak menyesal. Lebih tepatnya, aku berusaha untuk tidak menyesal. Dalam kehidupan, kita harus bertanggung jawab pada apa yang kita pilih, 'kan. Aku berharap Kakak sudah tenang saat membaca emailku ini. Tidak usah menyesal lagi. Tidak usah menyalahkan dirimu lagi. Cukuplah sudah. Aku sangat berharap Kakak sudah bisa memaafkan semuanya, termasuk dirimu sendiri.</p>
--	--

### ◆ “최희장 사모”가 지선우에게 했던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p>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어떤 관계든 너무 열정을 쏟으면 꼭 상처가 생기더라고. 다신 그럴 일이 없길 바라요. 이미 충분히 겪었을 테니까.</p>	<p>Bukankah lebih baik membiarkan semuanya lewat begitu saja? Saya menyadari kalau kita terlalu terobsesi pada suatu hubungan, pada akhirnya kita yang terluka. Semoga tidak terulang lagi. Kamu sudah cukup merasakannya.</p>
---	--

### ◆ 지선우에게 ‘인생 핑언’ 날리고 가신 하동식 아저씨(지선우의 환자)

<p>그게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심하는 순간 혹하고 뒤통수를 맞는 게 인생이잖아요. 산다는 건 불안의 연속이죠.</p>	<p>Aku menyadari bahwa ada masalah yang tidak bisa kita hadapi hanya dengan kekuatan (atau usaha) kita sendiri. Hari ini terasa tenang, tapi di hari berikutnya kita bisa saja ditusuk dari belakang. Itulah hidup. Rangkaian ketidaknyamanan yang tidak pernah berhenti.</p>
--	---



- ◆ *Berusaha itu tidak selalu menghasilkan yang terbaik.* (노력한다고 늘 최고의 결과를 얻는 건 아니죠)
- ◆ *Ditusuk dari belakang* 뒤에서 찔리다(뒤통수를 맞다) *Sesuatu yang tak pernah kita duga bisa terjadi kapan saja.*(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 ◆ *Rasa takut tidak akan pernah hilang selama kita masih hidup*(살아있는 한/우리가 삶을 살아 가는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 ◆ 극중 배우들이 생각한 사랑은 뭐였을까요?

사실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손제혁이 이런 대사를 했던 때가 있었나 싶네요.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죠.

공기 같은 것, 물 같은 것, 없으면 못 사는 것, 그게 사랑이더라고.	Cinta itu bagaikan udara dan air. Ternyata aku tidak bisa hidup tanpa cinta.
---	---

‘망언제조기’ 이태오는 두 사람을 다른 색깔로 사랑한다지요 (어떤 기분인가.. 알길 없는 그 마음…)

내가 미치겠는 건 (응 말해봐 뭔데 어디 들어나보자)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Aku cinta dua-duanya. Itu yang membuat aku gila.
--	---

- ◆ 좀 더 캐주얼 하게 대화할 때는 *Aku cinta dua-duanya.*  
외화 드라마 대본처럼 조금 딱딱하게 하면 *Aku mencintai mereka berdua.*



지선우가 생각하는 사랑은…(행복하길 바라 지선우…‥‥ㄸㄸ)

사랑은 착각의 시작이자 상처의 끝이었다. (내 사랑은 착각으로 시작해 상처로 끝났다)	Cintaku… bermula dari kesalahpahaman dan berujung pada luka hati.
--	--

### ◆ 인니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 ◆ (아… 제발 이태오랑 재결합 하지마…‥) *Jangan balikan sama Tae Oh plz…*
- ◆ (해피엔딩이긴 한데… 아… 뭔가 짝짝하지(빠진게 있어)) *Happy ending tapi kok ada yang kurang ya.*
- ◆ (미친…이 남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Gila nih cowok ini gak ada malunya. (gak tahu malu)*
- ◆ (닥터 지가 고산을 떠나야 된다고…하…‥) *Harusnya dr. Ji pergi dari Gosan.*
- ◆ (어이가 없네… (이태오) 원하는 게 뭐냐) *Gak paham lagi maunya apa…*
- ◆ (와…이 야밤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게 만들기야?) *Malem gini dibuat greget.. yaaa aaampun…*

☞ 인니어가 궁금하면? [여기로 nusantara817@daum.net](mailto:nusantara817@daum.net)



## 바타비아의 해양 감시자 Menara Syahbandar 전망대

조은아(꼬따뚜아 연구팀)

Menara Syahbandar 전망대

‘바타비아’는 VOC에게 단순한 독점 무역의 거점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정치적 군사력을 갖춘, ‘제2의 네덜란드’ 를 만드는 것이었다.

17세기 이후 유럽의 아시아 무역을 주도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무역망의 중심지였던 바타비아는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통해 유럽인들 뿐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등 다양한 종족과 문화가 유입되어 뒤섞인 복합 도시였다.

동인도 회사의 아시아 다른 지역들은 주로 무역 거점으로서의 역할만 하였으나, 바타비아 만큼은 정치적 군사적 힘을 통한 지배력을 갖추고 동남아시아에 네덜란드 제국령을 확장하는 기지 역할을 담당했다. 네덜란드를 대신해 국가 밖에서의 국가로서 모든 외교 교섭과 행정, 사법, 군사력을 바타비아에서 행사하였다.

VOC(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바타비아의 도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자신들의 또 다른 네덜란드를 바타비아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고르 지역에서 북부 순다 해협까지 흐르던 찰리웅 강을 곧게 펴 운하를 만들고 도개교를 축조해 해안에서 도시 안으로 드나드는 배들을 관리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했다. 정비된 새로운 강과 운하를 따라 네덜란드식 건물들을 짓고 도시 주변으로 성벽을 쌓아 주변을 방어하고 여러 민족 구성원과 계급을 구분 짓는 경계의 기능도 갖추었다. 유럽인과 일부 중국인 등 그들의 조력자들은 현재 자카르타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성내에 거주했고 다른 이들은 성 밖에서 주로 종족 집단에 따라 분리되어 거주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위한 ‘열대의 네덜란드’ 를 완성해 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 아래 두고 감시하기 위해 높은 전망대를 만들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내려다 보았다.

당시의 시대를 보여주는 몇 남지 않은 유적지는 잘란 파킨 Jl. Pakin 북쪽에 잘란 빠사르 이간 Jl. Pasar Ikan No.1 에 위치한 전망대 Menara Syahbandar (또는 룩 아웃 타워 Lookout tower, 네덜란드어로 Uitskijck) 위에서 내려다 보아야 더 선명해진다.

나무로 된 좁은 계단을 올라가보자. 흰색 건물, 초록색의 창문, 붉은 지붕, 4개 면 모두에 크게 난 창문을 통하여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타비아의 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요새도 거의 흔적만 남았지만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순다 끌라빠와 자야카르타의 그나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부분을 볼 수 있다.

특히 북쪽 창 아래로는 지금의 해양 박물관(Maritim Museum)과 성벽 일부, 잘란 빠사르 이간(Jl. Pasar Ikan), 옛 순다 끌라빠 선착장(Pintu Air Sunda Kelapa), 곧게 뻗은 운하와 현재의 순다 끌라빠 항구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 모두가 당시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1870년의 빠사르 이간의 모습 (전망대 안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 중 일부)

VOC의 가장 큰 경제 활동이 해운 무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전망대가 서 있는 진짜 이유다.

1602년 VOC가 자야카르타에서 터를 닦기 시작하고 1619년 완전한 정복을 이뤄 바타비아가 되기까지 최전방 해안선은 쥘리웅강의 지류를 따라 이어졌다. 쥘리웅강은 현재의 전망대 아래에서 왼쪽 잘란 파킨 방향으로 꺾여 내려갔었다. VOC는 바타비아를 자신들의 나라인 네덜란드를 본 따 도시를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쥘리웅강의 지류를 북쪽으로 곧게 바꾸어 운하를 만들었다.(운하 건설로 인하여 바타비아의 최전방은 1672년에는 루아르 바탕(Luar Batang) 지역과 순다 끌라빠 항구 북쪽까지 넓혀지게 되었다)

전망대에서 순다 끌라빠 항구를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대형 선박을 그곳에 정박하고 작은 배로 옮겨 도시 안으로 드나들게 하였다. 또 전망대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아 외부 침입을 막고 작은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성문을 만들어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전망대 옆 성벽 안쪽으로 선박에 싣고 갈 물건을 적재하기 위한 대형 창고(현재의 해양박물관 : 일본 점령 기간 동안에는 일본 군대의 물류 창고로 인도네시아 독립 후 PLN과 PTT의 창고로 사용되다가 1976년에 이 건물은 문화재로 선언되어 1977년 7월 7일 인도네시아의 해양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개관)를 짓고, 그 성벽 밖으로 세관을 두어 세금을 걷는 등 전망대는 그야말로 바타비아의 입구를 지키는 총체적인 해양 감시탑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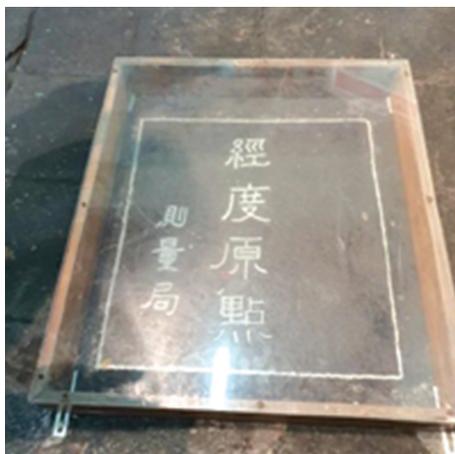
사실, 약 40미터, 3층 높이로 바타비아 유적지 중 가장 높은 건물인 이 전망대가 세워진 것은 1839년이다. 그 이전에는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구 VOC 조선소의 깃대에서 드나드는 배들과 신호를 교환했다. 그러나 이 전망대는 설치된 장소가 지반이 불안정한 늪지대였기 때문에 본디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엔 어려웠고, 1886년 만

중 프리옥 항구가 새로 문을 연 이후 물류창고와 경찰소(일제시대), 기상 관측소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었다.

전망대 1층에는 중국인들이 새겨놓은 ‘經度原點’ (경도원점) 이란 비문이 있는데 이는 이곳 전망대가 바로 바타비아의 경도 원점 0° 00' 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이곳에서 그들의 관리하에 바타비아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리라.

전망대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세월이 흐르면서 전망대가 노후되었고 1980년에는 남쪽으로 약 2도 정도 기울었던 경사가 현재는 약 6도가 되었다고 한다. 지반이 약한 운하 위에 나무와 콘크리트로 지어진데다 잘란 파사르 이칸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트럭의 잦은 통행에 의한 진동으로 전망대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 전망대를 ‘흔들리는 탑(Menara Goyang)’ 으로도 부르고 있다.



전망대 1층에 있는 비문 경도원점 / 측량국  
(촬영 : 조은아)

전망대는 바타비아의 가장 요충지였던 클롬버그 요새에 세워졌다.

군사력을 통해 무역을 독점하고 본래의 그들의 땅이 아닌 곳에 그들의 성과 요새를 쌓아나갔다.

이 전망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전망대가 서 있는 이곳이 당시 바타비아의 가장 요충지였던 클롬버그 요새 Bastion Culemborg 였다는 것이다. 전망대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감시와 방어 역할을 해오던 이 요새는 현존하는 마당 한 칸의 두 대의 대포가 본래의 임무를 맡혀주고 있다.

VOC는 설립 당시부터 정관에 무력사용권, 사법 관할권, 조약체결권 등을 보장받고 있었다. 1610년에 VOC가 각 지역별 총괄 총독의 직위를 신설하고, 1619년에 본부를 암본에서 바타비아로 옮기면서, 관료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VOC는 이 관료제와 군사력을 겸비한 막강한 세력으로 바타비아를 자신들의 도시로 변모시키기 시작한다. 디에먼(Anthony van Diemen, 1636-1645) 총독은 외부 침략에 대비해 성곽을 쌓고 VOC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 1645년 지어진 이 요새는 디에먼 총독에 의해 자신이 태어난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이름을 따서 Culemborg라 불리게 된다.

그 시기에 23개의 요새가 바타비아 주변에 축조되었는데 현재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해상 박물관 앞에 남아 있는 성벽을 따라 서쪽으로 이어진 지버그(Zeeburg) 요새와 전망대가 서 있는 클롬버그 요새 뿐이다.

클롬버그 요새 또한 바타비아 성벽의 일부분이었다. 자야카르타의 세관 자리 가까이에 지어져 1799년까지 바다로부터 드나드는 도시 입구를 지키기 위해 요새 수비대도 배치되어 있었다. 바타비아로 드나드는 모든 외국 사절 및 무역상들은 이 입구의 검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현재의 모습. 왼편이 현재의 해양박물관. (앞쪽으로 메마른 운하와 세관 건물이 보인다) 오른편 뒤쪽 멀리 현재의 순다 끝라빠 항구가 보인다. (촬영 : 조은아)

또 이곳 지하에는 지하 감옥도 존재한다. 그들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운하 아래에 지어진 이 어둡고 습한 감옥은 이곳에서 약 1.2Km 떨어진 역사 박물관 앞 파타힐라 광장의 우물까지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노예와 죄인을 이동 시키고 고문을 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적의 침입 때는 요새 아래 수문을 막아 군사 이동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북쪽 요새가 점령될 경우 반대로 수문을 열어 남쪽 요새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클룸버그 요새가 완성되기 이전 이 요새 자리에서는 몇차례 큰 전쟁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타람 술탄국과의 두 차례의 격전이었다. VOC의 승리였던 전쟁이었지만 마타람과의 전쟁 이후 VOC는 서둘러 이 곳에 요새를 짓고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그 만큼 이 요새의 위치는 바타비아 점령의 요지였고, 운하를 통한 해상 무역과 도시 보호, 도시 진출입을 관리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이 모든 것은 점령초기부터 완벽히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단, 잘란 파킨 남쪽 운하 설비는 실패하여 아직도 현 해양 박물관 기둥으로 물이 차오른다) 강의 지류를 곧게 바꿔 운하를 만들고 요새와 성벽을 쌓아 드나드는 모든 사람과 물건을 관리 감독하고 군사를 배치했던 그들은 전망대까지 만들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관리했던 것이다. 무역을 빌미로 외부인들에게 내어준 첫 발은 그렇게 그들을 밟고 서서 완벽하게 점령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클룸버그 요새와 관련한 전쟁의 이야기는 후편에 계속됨)

#### 참고문헌

- A.Heuken SJ, [Historical Sites of Jakarta] 2007  
 Ahmad Mansur Suryanegara, [Menemukan Sejarah] 1998



## 가르침과 배움의 어제와 오늘

### 통치 교육에서 공존 교육까지

가르침, 그리고 배움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르침과 배움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 그 내용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성된 전통이며,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 고대국가에서 조선 시대까지,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

유교는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형태로 고대국가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만든 학교의 주요 교과로 자리 매김했다. 유학을 주요 교과로 채택한 이유는 왕 중심의 지배 질서 유지를 지향한 고대국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서도, 관리들의 기본 소양을 갖추 수 있는 교과목으로 체계화된 논리성도 갖췄기 때문이다.

고구려에서는 4세기 소수림왕 대에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에서 유교 경전, 5세기 장수왕 대에는 지방에 설치한 학교인 경당에서 한학을 가르쳤다. 백제의 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5경 박사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교 경전과 그 교육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도 원광법사가 만든 화랑도의 세속 오계에 유교관련 내용이 있고, 임신서기석을 보면 2명의 화랑이 3년 내에 ‘시·상서·예기·전’

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세한 것을 새긴 금석문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경전 교육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북국시대에 이르러 유교 경전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심화됐다. 신라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을 교육하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설정하여 9년간의 학업을 마치면 나마나 대나마에 임용했다.

고려에서도 유학 교육과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태조는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설치했고, 성종은 ‘교육이 아니면 인재를 얻을 수 없다’는 조서를 발표하고 992년 국자감을 설치해 유학부에서 유교 경전과 함께 정치, 역사, 문학을 가르쳤다.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고 전국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해 유학을 가르쳤다.

조선 시대에는 사농일치의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교육 기회가 양인 전반에 확대되었고, 수령의 주요



01. 성균관 <명륜당> 보물 제141호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에 설치한 조선시대 국립대학격의 유학교육기관 02 동강서당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85호 동강 이희정이 세운 이래 많은 유학도를 배출하였으며 19세기 말 이후에는 사설학원으로 바뀌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보통학교 2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역할 중의 하나가 교육 진흥이었다. 조선의 교육제도는 과거 제도와 연관되어 있고, 양반 중심의 교육이었으며, 유학 교육을 숭상했다. 이를 위해 중앙에 성균관과 4부 학당, 지방에는 향교와 서당(천자문과 동몽선습 교육)을 설치해 유학 교육을 강화했다. 사립 교육기관인 서원이 조선 중기에 설치되어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했다.

### 기술 교육과 무인 양성 과정

고구려는 지방 학교인 경당에서 평민 자제를 대상으로 무술을 연마하게 했고, 백제는 전문가 집단인 박사 제도를 운영하여 의박사·역박사를 둔 것으로 보아 기술 교육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화랑도 제도를 통해 무술을 연마하게 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알 수는 없으나, 고구려·백제·신라의 역법과 각종 공예품, 철 생산, 조각품, 축성 등 현재 전해지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 세부 분야별로 매우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북국시대에도 기술 교육이나 무술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 계속된 전쟁, 그리고 남겨진 유물·유적, 그리고 교류 흔적

등을 통해 삼국시대의 전통을 계승해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전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국자감에 유학부와 함께 기술학부인 율학[법률], 서학[서예, 그림], 산학[수학]을 설치하여 교육하였는데, 평민들이 입학하여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에도 의학박사를 파견해 의학교육을 한 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에는 잡학을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시했고, 그 대상 분야는 법률, 서예, 그림, 수학, 의학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방(敎坊)은 향악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기생학교를 겸했으며, 이 제도는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조선 시대의 기술 교육은 주로 중인들이 담당했는데, 해당 관청에서 교육했다. 의학은 전의감, 천문·지리는 관상감, 외국어는 사역원에서 담당했다. 기생 교육의 경우 평양에서는 이른바 기생서재(妓生書齋) 또는 예기서재에서 이루어졌으나, 관기 제도의 폐지를 전후로 하여 주로 퇴기들이 집에서 기생이 되고자 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무와 서화 등을 개인 교습식으로 가르쳤다.



03. 1883년 민간에 의해서 함남 원산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원산학사 ©조선일보DB



04. 평남평양 기생학교 수업 풍경 ©국립중앙박물관

## 교육으로 부국강병을 꿈꿨던 개항 이후 교육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신사유람단·영선사·보빙사를 해외에 파견했으며, 다양한 문물을 접하면서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도 큰 변화를 보였다.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부국강병을 위해 근대 문물 교육과 외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민간에서는 대중 계몽을 통해 자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 개화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게 된다.

최초의 사립학교인 원산학사는 고종 20년(1883) 함경남도 원산에 설립되어 외국어, 자연과학, 국제법, 무술 등 실용 학문을 가르쳤다. 이후 국립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이 고종 23년(1886)에 설립되면서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상류층 자제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지리학, 정치학 등의 근대학문을 가르쳤다. 또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동문학을 세워 외국어 교육도 실시했다.

1894년 단행된 갑오개혁의 결과로 반포된 흥범 14조에 실린 교육 관련 항목은 ‘충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해 외국 문물을 학습하고, 기예를 견습하며, 장교를 교육한다.’ 라고 적시하면서 근대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반영했다. 고종은 근

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1894년에 학무아문을 설치하고, 1895년에는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다.

고종 황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기 위해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경성의학교, 철도학교, 광업학교, 상공학교, 광무학교, 한성학교 등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했으며, 유학생을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민간 차원에서도 배재 학당(중등), 이화 학당(여성 전문), 경신 학당(전문 상업) 등 개신교 계통의 사립학교가 만들어졌고, 애국계몽운동 등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 사립 학교와 서북학회, 기호학회 등 교육단체를 설립했다. 사립학교와 교육단체를 만든 목적은 국가의 존망 위기에서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자 함이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일본이 1908년 사립학교령을 제정해 통제하고,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을 공포하면서 시련에 처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해외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신흥무관학교, 서전서숙, 비행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반



05. 배재학당. 고종 22(1885)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중등과정의 사립학교 ©문화재청 06. 1886년 서울에서 선교사 스트랜튼 여사가 세운 초·중·고등과정의 사립학교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 ©Public Domain

발하며 야학 중심의 민족 교육, 문맹 퇴치 운동을 실시해 민중들을 계몽하고자 했으며,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민립대 설립 운동을 전개해 민족을 이끌어 갈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비록 이 같은 노력들이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교육 활동을 독립운동과 연계해 진행하려 한 피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열 번의 교육 과정 개편을 거쳐 진화하게 된다. 현재 운영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소프트웨어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의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위에서 언급한 제도권 중심의 유학, 잡학, 무술 교육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명 자산들에 대한 교육 활동이 초기국가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을 예로 들면, 고분 축조 기술과 함께 고분 벽화에 보이는 음악, 기예, 각종 신앙 행위, 각종 전통 지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부 종목에 대한 교육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다.

전통지식에 대한 교육은 교육생을 모집하거나 별도로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었으나, 실제 각 종목 교육은 일손을 도와주는 보조로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면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전통지식이 전승되는 사례들도 많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은 교육활동이 펼쳐지는 해당 시기에 강조되는 이데올로기와 지배층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전개된다. 그러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불리는 교육이기에 어떤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든 ‘①인류 문명 성과물 전승 교육, ②활용 교육 ③가치관·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각 시대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개되었다.

지금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개인의 핵심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시대이다. 개인이 지닌 역량과 지식을 체계화하여 다양한 형태(Youtuber, webtoon, 1인 방송 등)로 전승하고, 이를 받아들여 개인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다시 다른 이들과 공유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세계가 열려야 할 것이다.

글. 김도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월간문화재사랑



## 나눔의 행복-빵 주걱을 고쳐 잡으며



이 태 복 /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메**디칼 체크 환경이 열악한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율이 아니라 행정적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 사회적 제한과 제약이 강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만남이 줄어들고 경제가 둔화됐다. 회사가 문을 닫고 실직을 당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자 강도와 날치기 도둑들이 생겨나고 인심이 흉흉해졌다고 걱정을 한다. 인간이 문명과 과학으로 누리는 욕심으로 신을 무시한 채 인간들끼리 이기적 언어로 소통하며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다가 코로나로 멈춰 섰다. 재앙인가? 한국과 미국 유럽 등은 사태가 장기화 되자 가족들이 집안에 머물면서 가정불화와 폭력 등으로 이혼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떨까? 사회적 제약으로 코로나 베이비붐이 일어나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구 감소로 인한 출산장려와 비교되는 현상이다.

사랑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생산돼 가족이 탄생한다. 가족이 한올타리에서 살을 맞대며 베이비붐이 일어나는 것에 반해 가정파탄이 일어난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가정파탄 현상은 옛날보다 현대사회에 더 두드러지고 시골보다 도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이다. 코로나 뉴스가 마스크를 타고 살라띠가의 산골까지 파장이 커지면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먹구름처럼 몰려왔다. 이곳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제약으로 발전됐다. 동네 입구에 포르탈(차단막)을 설치하고 외부인을 통제하고 내부인을 단속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공동체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축소됐다. 시골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작은 짐승들이 깃털을 부비고 체온으로 부대끼며 따뜻한 정을 나누듯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모이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을 자바어로는 ‘농끄롱 농끄롱’이라 하고 슬쩍 찌르며 친해지는 스킨십을 ‘생골’이라 한다.

코로나가 창궐하며 ‘농끄롱 농끄롱’이란 말도 ‘생골’이란 말도 통용되는 횡수가 줄어들고 국제적 제약으로 글로벌 공동체가 문단속을 했고 지역사회 공동체마저도 한 지붕 공동체인 가족단위로 작아지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활동 폭이 가정으로 좁아지면서 가족들의 대화시간은 늘어났다. 대화로 소통할 수 있다던 주장이 코로나로 가정 파탄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인도네시아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통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 열매로 베이비붐이 일어나고 있다. 자바의 시골은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이 함께 숙제로 풀어가면서 오히려 가정에 꽃이 피고 있다. 이곳에 와서 전혀 없이 벌써 연구원에서 집콕 한 지가 두 달째다. 바깥으로 활동하는데 길들여진 내가 집안에

만 갇혀있는 건 고역이었다. 어찌다 힐링을 위해 이웃 동네에 마스크를 쓰고 사진촬영이라도 가는 날이면 아이들은 코로나가 왔다고 도망가는 바람에 오해를 피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웃들은 가정마다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난국을 극복하고 있다. 나도 삼식이가 되어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혼자 해먹는 음식은 늘 남아돌았다.

이웃들도 식구는 많지만 음식이 남기는 마찬가지라 음식을 많이 하는 날은 서로 나눠 먹었다. 혼자 있는 내게는 십시일반 두 집에서 나누어 준 것이 늘 남았다. 그때부터 나도 남김을 고민하는 것보다 충분히 요리해서 나눠먹기로 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빵 만들기다. 한국음식을 나눌 수는 없어 아침 한 끼만 내 기호로 만들어 먹고 점심 저녁은 이웃이 나눠주는 음식으로 때웠다. 때우는 게 아니라 주는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어떤 때는 과식까지 했다. 거의 매일 빵 주걱을 잡았다. 충분히 만들어 이웃과 앞집 고아원에 나눴다. 가끔은 동네 입구 경비하는 청년들에게 나누었다. 빵이 없는 날은 음료수를 사들고 경비 초소로 갔다.

그 열매로 지인들이 연구원을 방문하는 절차가 생략됐다. SNS인 What's App의 위력이다. 나눔의 소식을 실시간 공유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에 혼자 있으면 코로나로 유치원을 못가는 앞집 꼬맹이들이 한 두명씩 몰려온다.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놀아주지는 못해도 내 일정에 따라 빵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시청각 교육이라는 생각에서다. 온갖 참견하는 잔소리를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손주 같은 친구도 얻었다.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온 것처럼 즐겁고 사람 사는 맛을 느낀다.

서부 자바의 임금이 올라가고 이곳 살라띠가로 기업들이 몰려왔다. 농사를 짓던 이곳 사람들도



돈을 벌기위해 직업 외도를 시도하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했다. 돈으로 인한 갈등이 시작되는 세상의 문턱에서 돌아온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쨌든 코로나로 돌아온 인도네시아의 시골은 외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안타깝지만 가정불화는 커녕 오히려 서로를 걱정해주고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베이비붐이 일면서 인니정부가 인구폭발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니 말이다.

현금이 없어 가난한 시골 사람들은 있지만 생명부지는 시골이 나왔다. 자바의 농산물은 언제나 조금씩 남아돌았다. 시골에서는 도시로 내다파는 유통비가 비싸 자체 소비하고 요즈음 남아도는 잉여 농산물은 도시 빈민을 돕는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뜨고 있다. 시골 빈민은 생명을 위협받게 두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시골에는 코로나 보다 더 강한 ‘해피 바이러스’가 마을 공동체로 번지고 있다. 소독제는 물론 먹거리 나누기로 이웃을 챙기고 형편이 고만고만하지만 조금 더 가진 자가 ‘슴바꼬 나누기’ 등 배풀기를 즐겨워한다. 급속히 발전하던 경제 산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골로 돌아온 실직인력이 농사 노동력이 되면서 흔들리던 농경사회의 틀을 유지시키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콕으로 인해 가정에서 따뜻한 마음을 싹트게 했고 한마음으로 뭉친 공동체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누는 고통로용의 미풍양속을 회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유튜브란 스승은 나에게 실수 없이 빵을 만들 수 있도록 제빵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빵을 만들어 나누는 것이다. 때로는 살다가 힘들 때면 자연이 아름다운 옛것이 살아 있는 곳으로 역행의 기차에 오르는 버릇이 있다. 자연은 힐링과 함께 겸손을 배우게 했고 시골은 도시생활에 찌든 나를 부끄럽게 했다. 과거의 순수함으로 돌아오던 날 내 마음은 어느새 정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자바로 왔는지 모른다.

내려놓으면 편하고 나누면 가벼운 게 인생이다. 그리고 겸손하면 배우는 게 많다. 비우면 어느새 새로 채워지는 게 그릇인가 보다. 세상은 그렇다. 내가 단검을 잡으면 상대는 장검을 잡는다. 이런 끝이 없는 세상에서 벗어나 나는 지금 새로운 곳에 있다. 내가 나눈 작은 빵으로 큰 사랑을 받아 마음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사랑의 빛이 많은 빛 부자다. 잠시 멈춰 바라보는 앞길이 밝게 보인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오늘도 나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다시 빵 주걱을 고쳐 잡는다.



< A STAR IS BORN



박승우(찌까랑, 7세) feat. 박승현(13세)  
어머니~집안 인테리어는 제게 맡기세요!

‘그림으로 숲을 탄생시키는 아이’

#흰벽에그대로그리지않는것이어디야  
#장미는그녀에게#형의질투가이름드러냄  
#한집에예술가는하나로족하다#숲의휴식을집에서

좋아요 2383



공 고

인도네시아 한인동포가 쓰는 ‘한인100년사’의 제목과  
표지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인도네시아한인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haninnewsinni@gmail.com

## JIKS,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 대출 서비스 실시

JIKS, 초등 전교생에게 맞춤형 학습준비물 지원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김윤기)는 COVID-19로 인하여 쌍방향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초등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모든 학생에게 배부하였다.

학습 준비물에는 인니에서 구하기 힘든 교과 공책, 과학 및 기본 미술 재료를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따른 학년별 특색을 살린 교구들이 담겼다. 안전하고 신속한 배부를 위하여 수령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학습 준비물을 배부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학습 준비물을 수령한 JIKS의 학생회장 류정우 학생은 “COVID-19 때문에 원격수업 중 부족한 학습 준비물을 살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공

책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 준비물을 학교에서 챙겨 주셔서 무척 고맙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학년 성예준 학생의 학부모는 “소량의 미술 재료를 다양하게 구하기 어려운 현지 상황에서 이렇게 학생 개개인의 학습 준비물을 챙겨주는 것이 무척 고맙다. 한국에서 공수해 온 클레이나 만들기 키트를 보니 학부모로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원격수업이 무척 기대된다.” 고 말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JIKS는 원격수업의 어려운 교육환경에서도 매주 학생 개별 상담과 도서 대출, 방과후학교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 인니정부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등교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학생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JIKS,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 대출 서비스 실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김윤기)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COVID-19 로 인한 학교 폐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독서 능력 신장을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학생이 도서관에 있는 도서 중에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5~7권씩 직접 학생들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해주는 형식이다.

책을 전달 받은 12학년 유찬우 학생은 ‘매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또 다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e-book을 보는 것이 무척 힘들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읽고 싶은 책을 직접 배달까지 해주니 너무 좋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JIKS 김윤기 교장은 “COVID-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어 학생·학부모님들의 고민

과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해 학교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 고 말했다.

다음주부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Drive-Thru 방식으로 대출서비스를 시행한다. 학생이 신청하면 정해진 날짜에 학교의 일정한 장소에서 배부한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수업 중 필요한 학습 준비물도 학생 개개인별로 배부할 계획이다.

JIKS는 위기상황에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발빠르게 쌍방향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JIKS는 쌍방향 원격수업을 통해 기존의 등교수업과 방식이 다를 뿐 모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상담활동도 매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즐거로운》 학교생활

- 격리편 -



(학생기자 JIS12 김다현)

## 온라인 강의

코로나(COVID-19)사태로 인해 일상생활에 직장인만큼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봐도 매일 일정한 등학교를 하던 아이가 방학도 아닌데 집에 있는게 어색하기만 느껴진다. 학생은 학교가 취소가 됐다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친구들도 못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하는 처지에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와중에 학교는 교실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고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거나 녹화된 강의 또는 실시간 강의를 보는 등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온라인 강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큰 변화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서툰 부분도 보인다.

## 문제점

온라인 강의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하고 의지가 강해 학교 시간표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과제만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에 너무 유연하게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같이 독서실과 같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실시간 강의도 원래 과목의 시간이 아닌 경우에 하는 일도 생기고 이메일로 아무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현재 고3을 앞두고 있는 고2 학생 모두가 진도도 제대로 못나가는 불상사가 나타나면서 불안함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 즐거로운 학교 생활을 위한 꿀팁

### 1. 계획 세우기

플래너를 쓰는 것은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하루하루 해야하는 일들(학교 과제, 학원 숙제, 학습지 등등)을 보기 좋게 쓰고 가능하면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면 자신이 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알림 설정을 한다면 플래너와 더불어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삼가하도록 하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 2. 공부앱 사용

사실 공부하는 데 가장 큰 적은 휴대폰이다. 10분만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5시간이 되는 요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다. 더이상 휴대폰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가장 유명한 '열풍타'부터 '스터디 헬퍼', 'Forest' 등등의 공부 어플은 휴대폰 사용을 줄여주고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까지 있다. 열풍타를 통해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자극도 되고 자아성찰까지 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맞볼 수 있다. 컴퓨터/노트북 사용을 스스로 제지하고 싶으면 'cold turkey'를 써보도록 해라. 'Start new block'을 누르고 시간을 설정하면 정해진 시간동안 공부에 방해되는 웹사이트들을 차단해준다!



### 3. 적극적인 태도



학교생활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오프라인 수업으로 선생님들이 학생이 얼마나 수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지 알기 힘들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정주행하거나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소비했다면 앞으로는 30분씩 운동, 독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개학하고 나서 과거의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 코린도그룹, 마스크에 이어 방호복 파푸아에 지원



코린도그룹은 5월 29일, 오전 10시. 코린도그룹 본사 14층에서 파푸아에 방호복 기증행사를 가졌다. 머라우케(Merauke)와 보벤디굴(Boven Digoel), 그리고 마피(Mapi)군의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군에 각각 천 세트를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500세트는 코린도그룹이 운영하는 클리닉 아시끼(Klinik Asikie)에 기증해 총 3500세트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파푸아 지역은 지역 봉쇄 수준의 경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COVID-19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느 곳보다 큰 편이다. 이에 3개 군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방호복을 지원해 더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의 한국 봉제 업체를 수소문해 방호복 3500세트를 확보했다.



방호복 전달을 약속한 자리에서 코린도그룹 로버트 승 수석부회장은 파푸아에 대한 속 깊은 애정과 진심 어린 걱정을 다시 한번 표현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파푸아에 코로나19가 많이 번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회사에서 기증한 마스크에 이어 방호복을 전달하게 된 것도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지 않고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친지, 파푸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코린도그룹이 지난 4월 9일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증한 마스크는, 5월 12일 보벤디굴 군에 마지막 물량을 보냄으로써 총 12만장이 모두 파푸아에 전달됐다. 코린도그룹은 앞으로도 파푸아 지역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제공: 코린도 그룹)

# 공증인제도

(전호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공증인제도는 역사가 깊다. 기록에 알려진 바로는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VOC)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를 통치하던 400년 전인 1620년 8월 27일 자카르타(당시 명칭은 “Batavia”)에서 네덜란드 사람 Melchior Kerchem을 인도네시아의 첫 공증인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영국이 인도네시아를 통치한 기간(1795년 - 1811년)에도 공증인제도는 네덜란드 통치 시 제정한 그대로 유지되었다. 첫 공증인법은 1860년에 네덜란드 식민 통치자가 제정했으며, 1945년 건국 후 공증인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0호를 공포하고 2014년 법률 제2호로 개정했다. 현 공증인법의 기간은 1860년에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847년 4월 30일 공포하고 1848년 5월 1일부터 발효시킨 민법전을 172년이나 지났고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하고 건국한 지 75년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까지도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네덜란드어로 된 민법전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만 해서 그대로 쓰고 있다. 민법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민사소송법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 삼는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한국인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불가사의이다).

## 1. 공증인의 법적지위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법적지위는 특이하다. 공증인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나 법적인 신분은 Pejabat Umum(Public Officer)이다. 정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나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는 직권이 부여되어 있는 특이한 Public Officer이다.

## 2. 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의 기본 직무는 법령에 정한 자연인 혹은 법인의 법률행위, 계약 및 법령에 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공정증서 작성일, 공정증서 보존, 사본 공정증서 제공, 법령에 의해 특정 공직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정증서 이외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법에 주식회사(PT.)의 설립정관, 개정정관 혹은 주주총회 결의서는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정관을 공정증서가 아닌 일반문서로 작성하면 법무부에서 접수를 거부한다. 공증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1. 일반문서의 싸인과 일자를 공증한다.
- 2.2. 일반문서를 공증인의 특별장부에 등재한다.
- 2.3. 일반문서의 원본에 따라 사본을 만든다.
- 2.4. 문서의 사본을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을 한다.
- 2.5. 문서 작성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
- 2.6. 토지 관련 문서를 작성한다.
- 2.7. 경매증서를 작성한다.

## 3. 공증인의 의무

- 3.1. 책임감을 갖고 정직하게 독립적으로 편을 들지 않으며 법률행위 당사자의 이익 위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3.2. 문서는 기록증서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보존해야 한다.
- 3.3. 기록증서에 당사자의 지문을 보존해야 한다.
- 3.4. 기록증서에 따라 사본공정증서를 발급한다.
- 3.5. 공증인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직무는 거절해야 한다.
- 3.6.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증서의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한다.
- 3.7. 작성한 증서를 월별로 철을 만들어서 보존해야 한다.

- 3.8. 유언장 증서 목록은 월별로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
- 3.9. 매월 작성한 증서 목록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 3.10. 유언장 목록 보고일을 매월 말 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3.11. 소속 지역과 인도네시아 국장(독수리 모양)이 들어 있는 공증인 직인을 사용해야 한다.
- 3.12. 일반 공정증서는 그 내용을 증인 2명 입회하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공증인이 직접 읽어줘야 하며, 유언장 공정증서는 증인 4명 입회하에 당사자에게 공증인이 읽어줘야 하며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해야 한다.
- 3.13. 견습 공증인 견습을 받는다.

#### 4. 법령상으로 공증인에게 금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4.1. 소속 지역 이외에서 직무 수행을 금한다.  
\* “예” 자카르타 소속 공증인은 서구에서 공증인 일을 할 수 없다.
- 4.2. 적법한 이유 없이 소속 지역을 계속 7 근무일 이상 떠나서는 안된다.
- 4.3. 공무원으로 겸직을 금한다.
- 4.4. 국가 고위직 공직자로 겸직을 금한다.
- 4.5. 변호사로 겸직을 금한다.
- 4.6.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혹은 민간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을 금한다.
- 4.7. 소속 지역 이외에서 토지문서작성관(PPAT) 혹은 2등급 경매증서 작성고관으로 겸직을 금한다.
- 4.8. 교체 공증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
- 4.9. 종교, 도덕 혹은 공증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한다.

#### 5. 공증인 지역 등급

인도네시아 전국을 A 지역, B 지역, C 지역 및 D 지역으로 구분하고 신규 공증인은 반드시 D 지역에서 시작해야 하며 하등급 지역에서 최소 3년 근무

후에 상위 등급지역으로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 근무지 배정은 법무부장관의 관할이다.

##### 5.1. A 등급 지역

Jakarta 특별주 남구, 서구, 중구, 북구 및 동구

##### 5.2. B 등급지역

Bandung시, Surabaya시, Semarang시, Makassar시, Tangerang Selatan 시, Bekasi시, Yoyakarta시, Depok시, Bogor군, Tangerang군, Sleman군

##### 5.3. C 등급지역

Bekasi군, Bogor군, Tangerang시, Sidoarjo군, Bantul군, Surakarta시, Seli Serdang군, Gowa군, Batam시, Pekanbaru시, Denpasar시, Bandung군, Gianyar군

##### 5.4. D 등급지역

위에 열거한 A 등급지역, B 등급지역, C 등급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나머지 시/군은 모두 D 등급 지역이다.

#### 6. 공증인 피임 자격

- 6.1. 인도네시아 국민
- 6.2. 인도네시아 국내 법대 및 공증인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증인 시험에 합격한 자
- 6.3. 견습 2년을 마친 자
- 6.4. 최소 27세인 자
- 6.5.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역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7. 공증인 면직

- 7.1. 사망
- 7.2. 65세에 달한 자(\*조건을 구비하면 2년 연장 가능)
- 7.3. 자진 사퇴
- 7.4. 심신 장애로 계속 3년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 7.5. 위 “4항” 에서 금하는 직위를 겸직한 자.

(다음호에 계속)

## 하늘을 나는 꿈을 지녔던 토목 장인

설윤(G12)

### 뿌리를 찾아서



어렸을 적,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아주 자상한 분이셨다. 당신에게는 엄격하셨던 어머니도 자식들에게는 친구처럼 자상하게 해주셨다. 부산으로 이사 가기 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서울에서 살며

흙 바닥에 선을 그어 땅따먹기 놀이를 했다. 그 밖에도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 말뚝 박기, 술래잡기 등 내 발을 묶어두는 놀이는 끝이 없었다.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다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께 “이 꼴이 뭐냐!” 며 혼났던 기억마저 추억으로 남았다.

### 나의 인생, 나의 친구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다.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절친 재성이라는 친구였는데 미국으로 간 뒤 통 연락이 안 되어 안타깝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지구과학과 물리를 같이 공부하기도 했다. 스포츠머리를 맞댄 새까만 사내 녀석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니 경쟁이 붙어서 공부에 재미도 붙고 점수도 잘 나왔다. 일에 치여 바쁘게 달려오느라 잊고 살았는데 삶이 조금 느그러워진다는 중년이 되고 나니 그 친구가 자꾸 생각난다.

그리고 학창시절 절대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더 있으니 바로 중1 때 담임이었던 영어선생님과 고1 때 담임이었던 교련선생님이다. 체벌이 난무하던 시대여서 정말 매일 맞았던 거 같다. 요즘은 상

상도 할 수 없겠지만 고1 담임선생님은 훈련용 총으로 체벌을 해서 엉덩이에 멍 자국이 가지지 않았다. 그때는 선생님이 진짜 원망스러웠다. 물론 지금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웃어 넘길 수 있는 추억으로 남았다.

거의 모든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겠지만 그때는 나도 게임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오락에 푹 빠져서 어떻게든 부모님의 감시망을 피해 오락실에 갈 짝자꿍이를 쳤다. 모든 일탈의 끝이 그러하듯, 콧노래를 부르며 오락실에 가던 중 어머니에게 들켜서 된통 혼난 적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비겁한 행동은 부모님이 참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런 소소한 일탈을 제외하면 딱히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고 무난한 사춘기를 보냈다.

### 아내는 항상 옳다

나는 담배 궂초를 버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 아내가 담배 연기를 정말 싫어해서 담배를 끊는 조건으로 겨우 결혼을 승낙 받았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긴장이 풀려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건넨 담배를 피웠다가 아내한테 걸려 신혼여행 내내 혼이 나고는 그 뒤로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

### 내 삶의 원동력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아 보라고 한다면 단연 윤이가 태어난 순간이다. 어찌나 귀엽고 예쁘던지 나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을 보며 믿지 않던 신을 찾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외쳤다. 그날의 감동을 말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내 인생 최고의 날’ 이라고만 정의하려나.

안타깝게도 바쁜 직장생활로 사랑하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주말에만 볼 수 있었다. 결혼 7년 뒤, 분가하여 경기도로 이사를 가며 사랑하는 아들 윤이를 매일 볼 수 있었다. 비록 2년에 불과한 짧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간이었지만 우리 세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당시 나는 우리나라 주요 지하철 노선과 대관령의 풍력발전기, 고속도로 건설 등의 굵직한 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행복한 순간은 잠시, 직장을 옮기며 1년 먼저 혼자 인도네시아로 나오게 되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일이 바빠서 많

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 한국에 남겨질 아내와 윤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두세 달에 한 번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의 모습을 눈에 담고 돌아서는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세상 모든 아버지의 발걸음이란 그런 것이리라.

시간이 더 흐른 뒤 아내와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윤이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버틸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은 훌쩍 커버린 아들을 보며 세월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낯선 땅, 이질적인 문화와 직장 생활 속에서 윤이가 학교에서 활약하는 소식과 따뜻하게 나를 반기는 가족들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 윤이가 초등학교 영어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처음 듣는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했는지. 야무지게 자기 주장을 영어로 발표하는 아들의 발표 영상을 보며 입이 귀에 걸린 나는 ‘아들바보’가 분명하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 바로 성실하고 건강하게 소신껏 인생을 살기!

### 내 인생의 과속방지턱

아버지가 IMF 때 보증을 잘못 서서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파일럿을 꿈꾸던 나는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만성적인 비염으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파일럿이라는 꿈을 접게 되었지만 주변의 부러움 속에 공기업에 취직했다. 그러나 이제 무난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불행은 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때, 갑작스럽게 터진 IMF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 누구나 다 알만한 대기업의 임원이셨던 아버지도 한순간에 몰락하셨고, 나도 꿈과 직장을 잃게 된 것이다. 밝고 웃음이 많았던 나는 점점 예민해지고,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가장이 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막중해졌다. 포기하고 싶고 힘든 상황이 많았음에도 가족만을 생각하며 오지 속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다. 누군가 내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냐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생각이다. “인생의 굴곡은 과속방지턱처럼 모나고 울퉁불퉁하지만 가족을 위해 안전하게 착지할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다시 날아오를 것이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스트레스로 당뇨에 걸린 아버지. 태산처럼 커다랗고 건장하시던 몸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설상가상 치매가 악화되어 어느 순간부터 아들도, 그렇게 아끼던 손주 윤이마저 잘 기억하지 못하셨다. 윤이가 대학에 입학해 한국으로 돌아가면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효자를 기다릴 기력이 남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2019년 12월 14일,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아버지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시험 기간 중임에도 윤이를 데리고 아내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성수기라 겨우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다. 그 기쁨도 잠시,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해주었다.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트렸지만 나와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못난 아들의 손을 끝내 잡아보지 못하고 돌아

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서인지 내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장례식을 치르며 비로소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 당신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지금이라도 지면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유산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 인생의 낙, 그리고 꼭 해보고 싶은 것

골프가 점점 재밌어진다. 골프가 좋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딱히 큰 이유는 없다. 단지 라운딩하는 네다섯 시간 동안 세상 근심을 다 잊고 한 홀한 홀 집중하는 느낌이 좋다고나 할까?

윤이가 어른이 되어 손주를 낳고, 윤이처럼 맑은 눈동자를 닮은 손주가 윤이의 나이가 됐을 때, 3대가 함께 필드에 나가 잔디를 밟고 싶다. 그런 날을 누리려면 체력관리를 하며 건강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곧 어른이 될 아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윤아,

이제 곧 너도 어른이 되고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겠지? 인생 선배로서 조언 하나 하마.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마음이 잘 맞는 여자를 만나야 서로 믿고 배려하며 살 수 있다. 즉, 아빠가 선택한 여자처럼 멋진 여자를 만나렴! 외동인 내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힘든 일을 혼자 겪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의 얼굴에 옛날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구나.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가 자주 생각났다.

아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멋진 남자가 되리라 믿는다!



마을 주유소(Pom Mini) / Bu Iya (38세)

기름은 일반 주유소와 똑같은데 다른 건 우리가 30-40% 더 비쌉니다.  
주유소에 가자니 멀고, 가서 줄서자니 귀찮아서 소량 주유는 여기서들 하지요.  
만루피아, 이만루피아 이렇게 판매해요. 여기 파랑이 Pertamina 녹색은 Peralite 입니다

저는 우천불구로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휴일 없이 일합니다. 코로나 피해 엄청 커요.  
보세요! 차도 오토바이도 없잖아요. 한달 매출이 1/3로 줄었어요. 전에는 하루에 2백만루피아를  
팔았는데 ...

이 주유 기계요? 퇴근시 동네 주민 집에 월 삼십만 주고 유료 주차 합니다.

아~ 이 주유기는 제 것이 아니고 저는 관리원이예요. 우리 회장님은 이런 POM Mini를 3개나 운영  
하십니다. 전 월 2백만루피아를 조금 넘게 받는데 전에 일하던 곳은 이보다 더 낮았어요.

미래 희망이요?

흞 ~ 애들이 15살, 12살, 7살인데 제가 일하는 동안 할머니가 돌봐주세요.

다른 꿈은 없고요... 우리 세 아이들이 학업 마칠 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며 잘 키워내야죠.



# 2020 임원잔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0.1.1.~ 5.29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1	채만용 자문위원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	김동석 이사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14,000,000		
3	구종을 자문위원장	PT. JASINDO DUTA SEGARA	28,000,000		
4	김종희 이사	PT. YOUNG JIN INDONESIA	14,000,000		2019
5	강호성 부회장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70,500,000		2019
6	김소웅 자문위원	PT. SCI	14,000,000		
7	김종화 이사	PT. ART MOLD INDONESIA	14,000,000		
8	이해왕 이사	LEE & OH CONSULTING INDONESIA	14,000,000		
9	김재정 이사	PT. ZEUS COMPONENT INDONESIA	14,000,000		
10	강선학 부회장	PT. ALPHA TOY INDONESIA	70,500,000		
11	김우진 고문	PT. SAMINDO ELECTRONICS		5,000	
12	박재한 회장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13	조호신 이사	PT. NEMO INDONESIA	28,000,000		2019 ~ 2020
14	장영관 이사	PT. SURYA MOLD TECH	14,000,000		
15	정창섭 이사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16	손광주 이사	PT. POSCO INTERNATIONAL INDONESIA	14,000,000		
17	유용선 이사	PT. DAE HWA INDONESIA	14,000,000		
18	양시완 이사	PT. KISWIRE INDONESIA	28,000,000		2019 ~ 2020
19	김영만 자문위원	PT. BATAVIA CHEMTEK	13,700,000		
20	길병완 이사	PT. DAEYOUNG DUNIA SUBUR	13,700,000		
21	김경곤 이사	PT. SUKWANG INDONESIA	13,700,000		
22	김인기 이사	PT. INDOCORE PERKASA	13,700,000		
23	김호권 이사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3,700,000		
24	노대진 이사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3,700,000		
25	서영률 이사	PT. PRATAMA ABADI INDUSTRI	13,700,000		
26	이정호 이사	PT. HEONZ ROYAL JAYA	13,700,000		
27	정용완 부회장	PT. HUNG A INDONESIA	70,000,000		
28	조규철 자문위원	PT. DONG JUNG INDONESIA		1,000	
29	승범수 부회장	PT. KORIND GROUP		5,000	
30	김희중 이사	PT. JKI CONSULTING	13,700,000		
31	이완주 이사	PT. PERTIWI INDO MAS	13,700,000		
32	엄정호 자문위원	PT. ING INTERNATIONAL	13,700,000		
33	오세명 자문위원	PT. SUNGLIM CHEMICAL	13,700,000		
34	김일태 이사	PT. OROM	14,000,000		
35	양태화 이사	PT. BOSUNG INDONESIA	13,700,000		
36	유진상 이사	PT. DAE BAEK	13,700,000		
37	김영욱 자문위원	PT. GAYA INDAH KHARISMA	13,700,000		
38	강형구 이사	PT. MERITZ KORINDO INSURANCE	13,700,000		
39	김형근 이사	PT. GAYA INDAH KHARISMA	13,700,000		
40	최정남 자문위원	PT. GLOBAL FIBERINDO	14,000,000		
41	이명균 이사	PT. HIJAU ELEKTRONIKA INDONESIA	13,700,000		
42	이상일 이사	PT. UNGRAN INDAH BUSANA	13,700,000		
43	이정휴 부회장	PT. GEE SAN INDONESIA	69,750,000		
44	유주완 이사	PT. FEEL BUY INDONESIA	13,700,000		
45	권희정 이사	PT. SAMIC INDONESIA	13,700,000		
46	박성대 부회장	PT. HANJIN INDONESIA	70,000,000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47	하재수 부회장	PT. ROYAL PUSPITA	70,000,000		
48	김옥준 이사	PT. BSI MANAGEMENT (BSI GROUP)	13,700,000		
49	양영연 명예고문	PT. TAEWON INDONESIA	70,000,000		
50	이현상 자문위원	PT. ROYAL KORINDAH	13,700,000		
51	이진수 고문	PT. SUNGBO JAYA	70,000,000		
52	김준규 고문	PT. CIPTA ORION METAL	79,700,000		
53	강희준 자문위원	PT. SUNG TECHNOLOGY		1,000	
54	백인현 이사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3,700,000		
55	김영주 자문위원	PT. DEWA CITRA SEJATI	13,700,000		
56	석웅치 자문위원	PT. DAYUP INDO	15,000,000		
57	배응식 자문위원	PT. KORSIA BOAN PERKASA		1,000	
58	권천년 부회장	PT. FARMSCO FEED INDONESIA	75,000,000		

## 2020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입일순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 연도
1	채만용	300,000	
2	최석일	300,000	
3	김주형	1,000,000	
4	김동석	300,000	
5	최선명	300,000	
6	민정환	300,000	
7	김종희	300,000	2019
8	강호성	300,000	2019
9	이국청	600,000	2020-2021
10	김소웅	300,000	
11	박화선	300,000	
12	이원만	600,000	2020-2021
13	정민수	300,000	
14	전정우	300,000	
15	김종화	300,000	
16	이해왕	300,000	
17	김영실	300,000	
18	김영울	300,000	
19	조용재	300,000	
20	김창근	300,000	
21	김대근	300,000	
22	최성현	300,000	
23	현병순	300,000	
24	김희진	300,000	
25	강선학	300,000	
26	김우진	300,000	
27	조호신	600,000	2019-2020
28	장영관	300,000	
29	박재한	300,000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 연도
30	안창섭	300,000	
31	정창섭	300,000	
32	손광조	300,000	
33	김민영	300,000	
34	유용선	300,000	
35	김윤경	300,000	
36	양시완	600,000	2019-2020
37	노태진	300,000	
38	김영만	300,000	
39	김인기	300,000	
40	길병완	300,000	
41	정용완	300,000	
42	조규철	300,000	
43	김경근	300,000	
44	김호권	300,000	
45	이정호	300,000	
46	서영률	300,000	
47	김희중	300,000	
48	이완주	300,000	
49	송범수	300,000	
50	김재정	600,000	2020-2021
51	유진상	300,000	
52	김일태	300,000	
53	양태화	300,000	
54	오세명	300,000	
55	엄정호	300,000	
56	강형구	300,000	
57	김영욱	300,000	
58	김형근	300,000	

번호	성명	금액 (IDR)	납입 연도
59	이상일	300,000	
60	최정남	300,000	
61	이명균	300,000	
62	이정휴	300,000	
64	유주완	300,000	
65	권희정	300,000	
66	박성대	300,000	
67	박재현	300,000	
68	하재수	300,000	
69	김옥준	300,000	
70	이현상	300,000	
71	이진수	300,000	
72	김준규	300,000	
73	김병국	3,000,000	마스크 지원성금
74	채인숙	300,000	
75	최미리	300,000	
76	사공경	300,000	
77	김보연	300,000	
78	정유진	300,000	
79	강희중	300,000	
80	백인현	300,000	
81	김주형	1,000,000	
82	김영주	300,000	
83	석웅치	300,000	
84	이현용	300,000	
85	이송용	300,000	
86	배응식	300,000	
87	권천년	300,000	



# 인도네시아투자자문센터 Y S M & PARTNERS 법률사무소

투자자문. 소송. 기업법무. M&A. 인허가. 부동산. 자원. 귀화. 지식재산권

대표변호사 이승민(YI SENG MIN, SH., MH.)  
MP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무료 법률 및 투자 상담.Free Legal & Invetsment Consulting  
-화요일 오후 2시-4시 Jakarta KOTRA(Tel. 021-5790-5230)  
GKBI 8th Floor, Jalan Sudirman No. 28, Jakarta Pusat  
-주일 오전 10시 15분-11시 45분 한인연합교회  
Jalan Wijaya I No. 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203  
Jalan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Tel. 021-525-5959, 527-2422.  
www.indonesialawyers.id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8882
한인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JKIS)	844	4958-61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 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 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 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 학교 (JIS)	750	3640
북국제 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 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 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 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 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 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세무회계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가나의 Special MENU**



가나의  
북  
전문



가나의  
도시락  
전문



가나의  
케터링  
전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umchris@gmail.com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 DOOWANG과 함께 가던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 로템과 함께하면 증거속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분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등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쥬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	----------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끌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 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본점	722 2214
끌라빠가딩점	021 723 3214
무궁화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질레곤점	054-987 1049
무궁화반동점	028-8200 1674
무궁화죽자점	0815 4880 0256
무궁화마카사르점	0811 460 67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식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군**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http://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복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람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 하숙

경복궁 하숙(리보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보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아트스쿨(리보찌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DREMLAND TOUR	745	1961
KOURUS TOUR	744	72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L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ANUR)	918	1888
부가	805	1212
한일관	727	250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ISIS (NUSADUA)	770	256
ISIS (SANUR)	287	257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BALI TEGEHE AGUNG	298	643
SUN JEWELLERY	761	537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테 리 어  
경 관 조 명  
간 판**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0. 8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영사협력원	이 태 우	0812-3793-9452
		영사협력원	김 갑 수	0811-3945-52
2	반둥한인회 [ 022) 200-2154 ]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 031) 568-8690 ]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반뜰한인회 [ 0821-8166-6137 ]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근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정 성 화	0821-5497-9998
		수석부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배 성 운	0813-7180-6330

## [한인의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  
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인  
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  
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  
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  
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www.sticorp.co.kr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 International

##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SBS

DONGHAE

SIMS

Yeong Yang Wind Power

MINTEC

SRT

ABM

KIDECO

